

2020년 봄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20년 봄 계간 67호

평신도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020년 사순 묵상

하느님 안에서 쉼

스마트 쉼 · 감사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인사말**
- **식행사일정**
- **2020년 사목 교서**
- **천주교 스마트 쉼 문화운동 소개**
스마트폰, 양날의 검인가?
스마트 쉼 vs 스마트 윤리규범
-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수도회 탐방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소개

- **나눔** 나전철화 기증식
근·현대 신앙의 증인
나의 신앙 선조
- **이콘** 이콘이란
- **순례** 서울 순례길 3코스
성지순례 : 이탈리아 로마
- **이야기**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주보성인과 나

- **투고** 원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50주년 기념
-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평신도 양서
- **동정** 교구평협 · 회원단체



2020년 봄
계간 67호

평신도

CONTENTS

인사

02 손희송 주교

소식

04 3월-6월 행사 일정 / 염지유

사목

06 2020년 사목 교서

특집

08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 소개 / 김민수

11 스마트폰, 양날의 검인가? / 오현희

14 스마트쉼 vs 스마트 윤리규범 / 김대현

만남

16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 정태경

22 수도회 탐방 / 서희정

25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소개 / 박은영

나눔

27 나전철화 기증식 / 송란희

32 근·현대 신앙의 증인 / 김주완

36 나의 신앙 선조 / 안지연

이론

38 이콘이란 / 장금선

순례

41 서울 순례길 3코스 / 김영숙

44 성지순례 : 이탈리아 로마 / 김원창

이야기

49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 최태교

52 후보성인과 나 / 전윤경

투고

54 원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50주년 기념 / 이창수

배움

57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조각 / 한진섭

59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 영화 / 정성엽

62 평신도 양서 / 김선동

동정

64 교구평협·회원단체 / 염지유

발행인 손병선 아우구스티노
담당사제 조성풍 아우구스티노
발행처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편집위원 김병호 토마스 아퀴나스,
김선동 루카, 김주완 라우렌시오,
나권일 토마스, 서희정 마리아,
송란희 가릴라, 최태교 안드레아
(가나다 순)
제호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표지 김영훈 바오로
디자인·인쇄 가톨릭출판사

인사말

마음의 환경보호

손희송 베네딕도
서울대교구 총대리 주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환경보호에 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습니다. 1960-70년대에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해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의 구호 속에 파묻혀서 관심 밖에 있었던 자연과 환경에 대해 늦게라도 눈을 뜬 것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은 행복한 삶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환경이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외적인 환경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적인 환경입니다. 하지만 인간 내면의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실상 우리 주위에는 내면의 환경을 오염시키는 것들이 무수히 널려 있는 데도 말입니다. 신문과 방송 매체, SNS를 통해 쏟아지는 선입견과 편견, 일방적 보도, 거짓 뉴스, 폭력성, 선정적 충동 등이 그것입니다. 아울러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겪게 되는 좌절과 실망, 그로 인한 부정적 감정, 미움과 증오심도 오염 요인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내면의 뜰을 더럽히고 망가뜨립니다.

우리의 내면이 오염되면 온갖 나쁜 생각들이 솟아 나와 자신은 물론 주위를 혼탁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이런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살인, 간음, 불륜, 도둑질, 거짓 증언, 중상이 나온다.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마태 15,19) 눈에 보이는 자연과 세상의 오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오염에서 시작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4세기의 그리스도교 수도자들은 내면을 정화(淨化)하기 위해서 일상의 삶과 공간적으로 결별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정적 감정과 공격적 성향, 그리고 무의식적인 욕구와 과도한 열정으로 세상을 오염시키지 않기 위해서 고독한 사막으로 물러갔습니다. 수도자들은 혼탁한 세상에서 자기 한 몸 구하겠다는 이기심에서 세상을 등졌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을 바꾸기 전에 우선 자기 자신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인간 내면에 자리하는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인 힘을 가졌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내적으로 정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섬으로써 세상이 더 치유되고 더 밝아질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물론 다른 종교들, 이를테면 불교나 힌두교에서도 묵상과 명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조용한 시간을 갖게 되면 인간 영혼의

깊은 곳에서 ‘어두운 구름’ 곧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자기비하의 느낌, 치유되지 않은 상처, 실망감과 죄의식 등이 떠오르는 데, 이런 것을 정직하게 대면해야만 어둠에서 벗어나 빛으로 향하는 길이 열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자신의 문제를 정면으로 들여다보고 거기서 벗어나려는 고된 과정이 두려워서 고요함을 피하게 됩니다. 분주하게 일을 하고, 휴식 시간에도 고요한 곳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시끌벅적한 곳을 즐겨 찾습니다. 이에 편승해서 오락 산업은 소음을 쏟아부으면서 ‘네 자신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구호를 계속 외칩니다. 여기에 휩쓸리다 보면 결코 자신에게 돌아갈 수 없고, 내면은 잡초로 가득 차고 사막처럼 황폐해지게 됩니다.

내면이 황폐해졌기 때문에 우리 시대에는 점점 더 말이 거칠어지고 글이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말과 글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무고한 사람을 해칩니다. 단적인 예가 종종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듯이 젊은 연예인들이 악성 댓글을 보고 마음에 큰 상처를 입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런 거칠고 험한 세상을 원치 않습니다. 누구나 서로를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감싸 안아주는 세상을 원합니다.

사람 살만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고대의 수도자들이 한 것과 유사한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비록 공간적으로 사막으로 들어갈 수 없다 해도 ‘일상의 사막’을 찾아가 복잡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침잠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거실 텔레비전을 끄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승용차 안에서 라디오 소리를 죽이고, 버스나 지하철에서 스마트 폰을 내려놓고 조용한 마음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서 다듬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 바오로 6세 교황님은 침묵은 “영혼이 살아 나가는 데 있어 불가결하고도 놀라운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침묵을 중대

시하는 마음이 고성과 소음과 소란으로 포위당해 있는 우리 안에서 재생”되기를 간절하게 원하셨습니다(1964년 1월 5일 강론에서).

가톨릭 신자들에게는 침묵을 통해 내면의 정화를 위해 아주 좋은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에 가는 성당입니다. 성당에서 성체 앞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내면서 혼란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탁한 내면을 다시 청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전임 교황 베네딕토 16세와 여러 번 대담하여 책으로 발간했던 독일의 언론인 페터 제발트(Peter Seewald)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하루에 한 번쯤은 번잡한 일상에서 벗어나서 어느 성당에 들어가 잠깐이라도 앉아 있는 사람은 삶의 여유와 평화를 느껴볼 수 있다.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던 온갖 잡념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이다. 어쩌면 그 순간은 창문으로 환한 빛이 스며드는 시간일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곧 있을 미사를 위해 제단을 정돈하는 걸 볼 수도 있다. 숨을 고르기에 좋은 시간이다. 그리고 이렇게 작지만 거룩한 변화의 시간이 우리를 질식시킬 것 같은 나쁜 공기를 신선한 산소로 바꿔 줄 수 있지 않을까? 삼십 분 동안 마음의 긴장을 푸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간은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갈 수 있다.”(『수도원의 가르침』, 51쪽)

2020년 새로운 한 해에는 자주 ‘일상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내면을 청정하게 하는 작업에 힘쓰도록 합시다. 평일에도 시간을 내서 성당을 찾아가 성체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나의 내면이 좀 더 깨끗해지고 밝아질 때 내 주위의 사람과 세상이 조금씩 더 깨끗해지고 밝아질 것입니다. 침묵의 시간,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정화되어 거기서 순화된 말과 착한 행동이 맑은 물처럼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변화를 통해 내 가정이 변화되고 주변의 세상이 조금씩 변화될 것입니다. 

교구평협·회원단체 3월~6월 행사 일정

교구평협 행사 일정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춘계 상임위원회**
 - 일시 : 4월 17일(금) ~ 18일(토)
 - 장소 : 인천교구 갑곶순교성지
 - 문의 : 02-777-2013
- ▶ **전반기 연수회**
 - 일시 : 6월 19일(금) ~ 20일(토)
 - 장소 : 마산교구 가톨릭교육관
 - 문의 : 02-777-2013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서울평협 회원연수**
 - 일시 : 3월 20일(금) ~ 21(토)
 - 장소 : 성 앵베르 센터
 - 문의 : 02-777-2013
- ▶ **평사연 포럼**
 - 일시 : 4월 11일(토)
 - 장소 : 서울대교구청 501호
 - 문의 : 02-777-2013

평신도 아카데미 <교황문헌>

- 일시 : 6월 1일(월) 개강
- 장소 : 명동 가톨릭회관
- 문의 : 02-777-2013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정기총회**
 - 일시 : 2020년 3월 7일(토)
 - 장소 : 춘천 가톨릭회관
 - 문의 : 033-243-4416

6.25 순교자 시복시성을 위한 성지순례

- 성 정하상 바오로의 삶과 영성
- 일 시 : 4월 28일(화) ~ 30일(목)
- 순례지 : 정하상 성인 관련 성지 10곳
- 문 의 : 033-243-4416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 **2020 수원교구 상반기 회장 연수**
 - 일시 : 3월 28일(토) ~ 29일(일)
 - 장소 : 수원교구 아론의 집
 - 문의 : 031-246-3660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대위원 연수 겸 총회**
 - 일시 : 3월 28일(토) ~ 29일(일)
 - 장소 : 한마음 수련원
- ▶ **여성단체장 연수**
 - 일 시 : 6월 29일(월)
 - 장 소 : 의정부교구 호원동성당
 - 연락처 : 031-876-2004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교구평협 워크숍 및 엠마우스**
 - 일시 : 4월 25일(토)
 - 장소 : 미정
 - 문의 : 055-249-7114

교구평협 상임위원 전반기 연수

- 일시 : 5월 22일(금)
- 장소 : 마산교구청 4층 회의실
- 문의 : 055-249-7114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 **주교님과 소통하기**
 - 일시 : 4월 18일(토)
 - 장소 : 전주교구청

요안루갈다길 도보순례

- 일 시 : 4월 25일(토)
- 순례지 : 초남이성지-치명자산성지
- 문 의 : 063-230-1004

요안루갈다제 순교자 현양미사 및 20회 평신도 사도직 축제

- 일시 : 5월 2일(토)
- 장소 : 치명자산 광장
- 문의 : 063-230-1004

회원단체 행사 일정

한국가톨릭교수협의회

- ▶ **부활맞이 피정**
 - 일시 : 3월 28(토) ~ 29일(일)
 - 장소 : 대전 정하상 교육회관
 - 주제 :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요한 14,6)
 - 문의 : 010-6331-2744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 **전국 레지오 마리아 피정**
 - 일시 : 5월 13일(수) ~ 14일(목)
 - 장소 :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
 - 대상 : 각 교구 선교회 소속 레지오 단원 및 레지오 활동에 관심이 있는 회원
 - 문의 : 02-451-0333

상반기 전국 회장단 회의

- 일시 : 6월 중
- 장소 : 부산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 문의 : 02-451-0333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 **중앙이사회 성지순례**
 - 일시 : 4월 8일(수)
 - 장소 : 미정
 - 문의 : 02-2258-7805

일정은 주최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전국 교구장 사목교서 요약



2019년 12월 1일은 교회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첫 주일이다. 전국의 교구장 주교들은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대림 1주에 일제히 2020년 사목교서를 발표하고 교구가 한 해 동안 나아갈 사목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평신도들은 자신이 속한 교구의 교구장이 발표한 사목교서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 새로운 한 해의 사목에 충실하게 따를 필요성이 있다. 각 교구장이 발표한 16개 교구의 사목교서는 내용이 방대하여 지면 관계상 심지를 못하나 사목교서의 원문은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교회의 > 교구장 문서 > 사목교서** 순서로 클릭하거나 직접 <http://www.cbck.or.kr/Bishop/Message> 주소를 치면 찾을 수 있다. 또한 사목교서 요약본은 가톨릭평화신문 12월 1일, 8일, 15일, 25일자 각 8면을 참조하거나 가톨릭신문 2019년 12월 1일자 1면을 참조하면 된다. 평신도 잡지에서는 지면 관계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홈페이지의 사목교서에 나온 슬로건만을 기록한다. 순서는 주교회의 홈페이지에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정리하였으며 교구장 이름은 생략하였다.(편집자 주)

서울대교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복음화” 복음의 기쁨을 선포하는 본당 공동체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마르 16,15)	의정부교구 “본당은 그 지역에 사는 교회의 현존이며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인 생활이 성장하는 곳입니다.”(복음의 기쁨 28항)	광주대교구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본당의 해 II
춘천교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갑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2코린 5,17)	대구대교구 새로운 서약, 새로운 희망 치유의 해, 성체를 공경하며 성령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전주교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마태 28,20) 교구설정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복음화
대전교구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 공동체” 교구 시노드 정신이 뿌리내리는 해	부산교구 2020년 “사랑의 해” 신망애를 통한 본당 공동체의 영적 쇄신(3) ‘사랑의 해’	제주교구 “생태영성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공동체”
인천교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이 오히려 행복하다.”(루카 11,28)	청주교구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	군중교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
수원교구 새로운 방법, 새로운 선교	마산교구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원주교구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1테살 5,17)	안동교구 “기쁨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일군대!” 교구 50주년 다짐 실천의 해	



특집 스마트쉽

- I. 천주교 스마트쉽 문화운동 소개
김민수 이나시오 신부
- II. 스마트폰, 양날의 검인가?
오현희 세실리아 본부장
- III. 스마트쉽 vs. 스마트 윤리규범
김대현 방지거 사베리오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 소개

김민수 이나시오 신부 / 서울대교구 청담동 성당 주임, 언론학 박사



오늘날 디지털 기술이 삶의 모든 영역에 융합되면서 스마트폰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순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과의존과 온라인상 폭력·범죄 등에 관련된 역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은 교회와 신앙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 긍정적으로 활용되어 신앙실천에 큰 도움을 주지만 과다사용으로 기도시간을 빼앗거나 깊이 있는 성찰과 반성의 능력을 저하시키는 등 여러 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아동, 성인, 고령층 등 대부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과의존



▲ 천주교 스마트쉼 운동본부 출범식

위험이 증가하고, 특히 미래 세대인 유아동과 청소년 계층의 위험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만 3세에서 69세까지의 전체 연령대를 보면, 14.2%(2014)→18.6%(2017)→19.1%(2018)로 해가 갈수록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유아동(3~9세)은 17.9%(2016)→19.1%(2017)→20.7%(2018)로 모든 세대 중에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스마트폰에 아이를 많이 노출시키는 부모의 육아태도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청소년(10~19세)의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해마다 조금씩 줄지만 그 비율은 모든 세대 중에 가장 높은 29.3%이기 때문에 과의존에 따른 폐해가 여전히 많습니다. 60대가 유아동 다음으로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14.2%로 높이 상승하여 어르신 세대 역시 스마트폰 사용에 부정적인 측면을 상당히 체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같이 전 세대에 걸친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이 심화되면서 정부, 기업, 학교, 종교, 민간단체 등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에 관련된 범국민적인 인식과 의식개선이 제고되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종교계도 이에 동참하고자 2015년부터 불교, 개신교, 천주교 이렇게 3대 종단이 연대하였고,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를 위한 예방교육과 선용운동을 추진하고자 종교별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설립하였습니다. 천주교에서도 2019년 스마트쉼 문화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출범하였습니다. 앞으로 종교 간 긴밀히 연대하여 프로그램 교류, 정보교환, 공동 심포지엄이나 공동 행사 등을 기획하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3대 종교의 연대는 스마트쉼 문화운동을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는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비롯하

여, 강사 양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상담과 치유도 병행하여 교회내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스마트쉼 문화운동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우선, 스마트쉼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공유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쉼'은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그리스도교적 '안식' 개념과 맥락을 같이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느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쉼은 곧 창조의 완성을 뜻합니다. 쉼이 없는 노동과 일은 하느님 없는 세상, 사랑과 감사와 용서와 기쁨이 배제된 비참한 세상입니다. 스마트폰의 편리성과 쾌락에 집착하고 얼마일 때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매일 매순간 끊임없이 사용하지만 어느 때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스마트폰도 좀 쉬게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요? 거리를 둬으로써 나도 쉬고 스마트폰도 쉬고, 그래서 쉼을 통해 하느님 안에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일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몸과 마음을 쉬게 하여 기도, 성찰, 묵상, 회개로 이어지는 참다운 안식을 얻는 '주님의 날'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실천으로는 '디지털 금식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자 합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이 운동을 타본당, 타종교,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공동으로 펼친다면 기대효과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디지털 금식 운동은 십자가의 길을 디지털 시대에 구현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입니다. 사순절에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절제하고, 대신에 우리 삶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디지털 기기를 절제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기, 한 번에 20분 이상 SNS 사용 금지,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하지 않기, 자기 전에 스마트폰 보지 않기, 사용하지 않는 앱 정리하기, 온라인 게임을 절제하기, 식사 중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기 등 자신만의 목표를 세워 지켜나간다면 몸도 건강해지고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로 영적 성숙도 가능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스마트십 문화운동으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입니다. 이것은 '디지털을 이해하고 다룰 줄 아는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입니다. 디지털 시대에 디지털 지식과 정보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공유되는 디지털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가짜뉴스와 같이 넘쳐나는 허위정보를 분별하는 객관적이고 주체적인 판단을 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를 다루는 능력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윤리의식과 시민의식을 갖추고 책임 있게 미디어를 선행하는 자세를 갖추도록 하는 교육이 따라야 합니다.

네 번째 스마트십 문화운동의 방법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다양한 실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적 신앙 실천 방식은 자기 증여라는 사랑, 공동체의 소속감, 어려운 이웃에게 베푸는 봉사, 이웃과의 만남과 화해 등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 구성원들이 이러한 신앙실천으로 이끌어 주어 자칫 빠질 수 있는 스마트폰 과의존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랑의 구체적인 방식으로 표현되는 다양한 믿음의 공동체 활동이 활성화될 때 오프라인 상으로의 만남과 접촉은 공동체적 기쁨과 즐거움을 체험하게 합니다. 여기에는 소공동체 모임과 여러 단체 모임, 그리고 취미와 취향에 따른 다양한 동호회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모임에 소속되어 함께한다면 공동체 의식이 함양되고 공동체 활동

을 통해 진정한 대화와 소통을 이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독서모임>은 각자 취향에 맞는 구성원이 모여 선택한 책을 가지고 신앙을 포함한 삶의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함께 식사할 수도 있습니다. 여행이나 공연, 스포츠나 등산 등을 함께 하는 동호회 활동도 스마트십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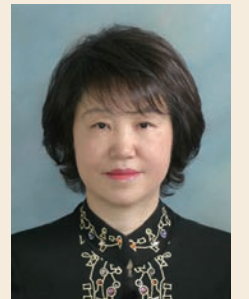
특히, 가톨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어오는 다양한 대중신심활동이 있어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스마트십 운동으로 전개할 수 있습니다. 최근 '걷는 문화'가 일상화되고 성지순례가 교회에서 활발하게 확산되면서 성지순례모임이 생겨나고, 가족이나 그룹으로 전국, 해외로 시공간을 함께 체험합니다. 이러한 신심활동은 디지털 미디어에 따른 개인주의적 도피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십 문화운동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스마트십은 하느님의 자녀로서 이 시대를 올바른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는 신앙 실천이라 하겠습니다. 교회는 디지털 세계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중독된 누구에게나 반드시 적절한 방법으로 '돌봄의 영성'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특집

스마트폰, 양날의 검인가?

오현희 세실리아 / 천주교 스마트십 문화운동본부장, 한국가톨릭문화연구원



얼마 전에 '두 교황'이란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의 첫 장면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교황이 된 후 처음 방문하셨던 람페두사로 가기 위해 전화로 상담원에게 비행기표를 예약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마지막 신은 전화로 예약이 힘들자 교황님은 온라인으로 예약하기 위해 경비병에게 와이파이 사용법을 묻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경비병은 놀라서 스마트폰을 꺼내 교황님의 비행기 티켓을 예매해주는 장면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사람의 경험과 지능을 디지털 기술로 바꾸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에 스마트폰의 위력은 정말 대단합니다. 쇼핑, 음식·커피 배달, 새벽 배송, 은행 업무, 각종 예약, 농작물 키우기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기능으로 편리함을 더해 주는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날로 발전되는 카메라 기술과 함께 사진 찍기의 열풍은 선사(先寫)시대라는 신조어까지 낳고 있습니다.

또한 무한한 콘텐츠를 무기로 하는 스마트폰 유튜브앱으로 세상을 동영상으로 시청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세상을 처음 만난 세대



▲ 2019 출범 심포지엄



▲ 2017 심포지엄

에게 유튜브는 단순한 동영상 플랫폼 그 이상이며, 유튜브로 소통하고 유튜브로 세상을 만나면서 생활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갓 난아기부터 실버세대까지 모든 세대를 다 품어버린 유튜브는 없는 것이 없는 것투라고 불립니다. 태어나서 말을 배우기도 전에 먼저 유튜브를 보고, 아이들은 학습과 정보 검색도 인터넷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서 자랍니다. 요즘은 많은 초등학생들의 꿈이 크리에이터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는 고등학생이 유튜브에 올릴 동영상 촬영을 하다가 한강에서 익사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스마트폰은 문명입니다. 신문물입니다. 소통의 새로운 채널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자”는 운동을 펼칠 수 없습니다. 고개를 수그리고 스마트폰을 쓰는 ‘수그리족’, 스마트폰을 보면서 걸어가는 ‘스몸비’, 식당에서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를 보고 있는 모습은 이제 일상이 되어 버렸고, 팝콘브레인, 거북목, 불면증, 어깨증후군, 터널증후군, 유령진동증후군, 방아쇠수지증후군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부모들과 자녀들 사이에는 스마트폰 전쟁이

시작 되었습니다. 게임과 SNS에 몰입하는 것은 물론 은밀하게 포르노 영상에 빠져들어 디지털 성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18년 우리나라 스마트폰 가입자 수가 4,982만 명(과기정통부)에 이르면서 사회적으로 스마트폰의 과다사용에 대한 우려

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래 세대인 유아동, 청소년 계층의 위험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유아동(만3~9세)은 5명 중 1명, 청소년은 3명 중 1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스마트폰중독이라는 용어를 중독 대신 ‘과의존’, ‘과몰입’으로 바꾸면서 정책도 ‘예방과 선용’ 쪽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단체인 한국정보화진흥원과 NGO 단체, 종교계가 함께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만들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운동을 펼쳐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나서야한다는 취지로 천주교에서는 작년에 ‘천주교 스마트쉼 문화운동본부’를 발족하여 ‘소통과 영성’을 통한 스마트쉼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과다사용의 위험성은 기기 사용 자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은 물론 소통방법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SNS로 개인과 개인이 거미줄처럼 엮여져있는 디지털시대에 살다보니 SNS를 통한 대화에 익숙해져 가는데, 얼굴을 마주보고 한 번 이야기하는 것과 SNS를 통해서 120번 대화하는 것이 같다고 합니다.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는 내 의사를 말로 전달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경청의 태도가 필요하므로 디지털 기기

를 통한 비대면 대화로는 소통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가족 간의 소통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에 빠지면서 가족 간에 대화가 없어졌다고 호소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한편에서는 SNS에 가족방을 만들어 대화하다 보니 재미있고 생각을 공유할 수 있어서 가족 간의 소통이 더 좋아졌다고도 하는데, 사실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는 직접 대화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통방법에도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과다사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직까지 새롭고 획기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점이 답답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그 답이 우선 가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관계회복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를 신뢰하고 인정해 주어 자신이 사랑받는 소중한 존재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완벽함을 내세워 상대방을 야단치기보다는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며 하느님께 비취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열등한가를 표현, 고백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정 안에서 배워야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영원한 생명의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요한 4,14-15) 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른 후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자존감이 회복되었듯이 내 안에 계신 하느님을 만나려고 노력하며, 매일 자녀들을 위하여 스마트쉼을 위한 기도를 바치고 자녀에게 수를 해주도록 합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 스마트폰 사용 조절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부모의 스마트폰 사용 절제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에게는 스마트폰 사용규칙을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함께 정한 사용규칙은 가족 모두 지키도록 노력하고, 스마트폰을 끌 때는 강압이 아닌 자녀 스스로 끌 수 있도록 유도하며,

끄는 시간을 정해서 그 시간 이후에는 모든 가족이 스마트폰을 보관함에 넣도록 합니다.

한편 스마트폰 선용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복음의 기쁨’에서 “오늘날 선교활동을 포함한 복음화는 교회에서 큰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그리스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다가 갈 수 없게 되므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모든 참다운 복음화 활동은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교회는 급변하는 새로운 상황과 조건의 변화에 맞서 예수님의 복음화 방식에 비추어 성찰하면서 과거의 복음화 방식에서 벗어나 새 길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전의 방법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열정, 새로운 방식, 새로운 표현’으로 복음화의 사명을 실천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는 스마트폰 앱을 활발히 개발하여 매일 성경쓰기, 읽기, 기도문, 성지순례 안내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으며, 유튜브를 통해서도 교황님의 말씀, 신부님들의 강론 등을 시공간을 초월하여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 종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다 보면 “나는 하느님보다 스마트폰에서 더 안식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나는 점점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인간의 개입보다는 물질 간의 교류가 더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 이미 들어선 지금, 디지털시대에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참된 인성의 계발이 시급히 요구되며, 그것의 정점은 바로 ‘영성’일 것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며 하느님 안에서 ‘디지털 쉼’을 하고, 매일 하느님께 드리는 감사기도로 영성의 첫 걸음을 내딛어 봅시다. 

스마트쉼 vs 스마트 윤리규범

김대현 방지거 사베리오 / WorldVentures SR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나

저는 아침에 일어나 먼저 매일미사 앱과 예수회 팟캐스트(쉬기 날기)의 유튜브 동영상상을 보고 그를 발췌 요약하여 문자와 카카오톡과 문자로 지인 신자들에게 보내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저는 2014년 한국은행 정년퇴직 후 여행사 일을 하고 저 스스로도 여행을 즐기고 있는데, 여행사 사무실로 출근은 하지 않고 고객들이 전화나 카톡문자로 의뢰를 하면 적합한 여행지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문자로 알려주기도 하고 여행사 직원들에게 문자로 의뢰하기도 합니다. 이 일을 하는데도 여지없이 스마트폰과 아이패드 태블릿 PC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고정된 사무실이 없으니 스마트폰은 나의 움직이는 사무실인 셈이고 남들이 보면 항상 스마트폰을 끼고 사는 듯이 보입니다. 헬스장이든 거리에서든 고객으로부터 오는 문자 주문을 받아 즉각 처리하니 제게 스마트폰은 생필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활용지도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예전 직장인 한국은행 OB들 모임에 나가 스마트폰 활용방법을 지도하면서 그분들에게 무한한 고마움의 인사를 받고 있으며 반포2동 동네와 성당에서도 주민들과 신자들에게 스마트폰 활용법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동기회 총무를 여럿 맡고 있는데, 경조사 연락이나 모임 정보제공에 스마트폰의 활용은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한 여행갈 때에도 항상 스마트폰으로 구글 맵, MapsMe, TripAdvisor 등을 이용하여 길 안내 받고 맛집을 찾아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문명의 이기

디지털 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이르기까지 등장하는 스마트폰은 인간을 편하게 하고 단순 작업에서 인간을 해방시키는 혁신적인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이 현재와 같은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엄청난 융합의 과정과 진화를 거듭했습니다. 즉



▲ 스마트폰활용지도사 자격증

스마트폰은 단순한 전화기가 아니라 디지털 복합 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는 모바일 성경 등 전자책 유튜브 등으로 대변되는 음악감상 기기, 정보검색기, 내비게이션, 만보기 등 헬스 기기, 카메라 및 비디오 기기, 영상편집기, 녹음기, 동시통역 기기, 모바일 쇼핑, 주식투자 및 모바일 뱅킹, 신문, 라디오, TV,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능이 녹아들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기능의 1%도 못쓰고 살고 있지요. 그래서 디지털 디바이드에서 스마트폰 디바이드라는 말이 나옵니다. 즉 스마트폰을 잘 다루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들 간에는 일을 처리하고 인생을 즐기는 데 있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합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잘 이용하지만 균형감각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아침에는 스마트폰을 젖혀 두고 스트레칭 운동 후 반포성당 6시 새벽미사를 참례하고 이어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한 후 샤워를 하며 상쾌하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1시간 정도 스마트폰 작업을 한 후에는 눈과 머리를 쉬어 줍니다. 하긴 휴식도 디지털 기기(스마트폰) 이용하여 휴식하기도 합니다.

가장 심플하게는 집에서 CD Player를 켜고 음악을 듣기도 하지만 밖에 있을 때에는 스마트폰의 구글 어시스턴트(Google Assistant)로 음악을 듣습니다. 예를 들어 명상 음악 틀어줘 하고 음성으로 명령하면 명상음악이 흘러나오는 식이지요.

그리고 매주 걷기 운동이나 힐링여행 등 야외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예의 윤리규범 제정 필요

이런 제게 어느날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강사 양성 교육'에 참가할 수 있겠느냐는 의사 타진이

왔을 때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고 그래서 '스마트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스마트쉼 운동은 미성년자들이 자기조절을 못해 과도하게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즉 스마트폰을 과하게 하지 말라는 뜻이지 스마트폰을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닌 것이겠지요? 그런데 이 운동에 스마트폰을 더 배워야 할 분들이 적극 앞장 서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어 보입니다.

사실 요즘 회식이나 식사 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고 각자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는 사진이나 지하철에서 모두다 스마트폰만 들여다 보고 있는 사진은 요즘 세태를 패러디로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모든 문제가 스마트폰에 있는듯이 스마트폰을 죄인 취급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스마트쉼이 스마트폰 기피나 혐오를 의미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원자 핵 분열은 그 자체로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데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원자력 발전 등 유용한 기기로 만들 것인지 원자폭탄이라는 괴물로 만들 것인지는 제도와 윤리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해야 하겠지요.

마찬가지로 스마트폰도 부작용이 있다고 무조건 멀리 할 것이 아니라 균형감각을 가지고 스마트 시대에 걸맞은 예의 윤리규범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스마트시티, 스마트폰, 스마트워크, 스마트TV, 스마트 카, 스마트경제 등으로 대변되는 스마트시대에 스마트한 생애 반감을 가지게 하는 '스마트쉼' 운동보다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각자의 스마트한 인생을 즐기는 현명한 방법과 윤리를 강구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평신도가 만난 평신도

우리 신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늘 '찬미예수님!'이지요.

대담 · 정리
나권일 편집위원



정태경 마티아 /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장

수원교구 평협을 이끄는 정태경 마티아 회장은 수원교구 평협 회장만 두 번째 맡아 봉사하고 있는 열성 신자다. 수원교구 평협은 지난해 50주년을 보내면서 특별히 '찬미예수님 영성운동'을 시작했다. 전 신자가 차량과 휴대폰에 찬미예수님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것은 물론이고 만나서 첫 인사도 찬미예수님, 서로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찬미예수님으로 시작한다. 재미있는 것은 '찬미예수님' 위에 '언제나'라는 작은 글씨가 붙어있다는 것이다. 우리 신앙인들은 숨 쉬는 것처럼 찬미예수님을 생활화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정 마티아 회장은 "우리가 '찬미예수님'을 가슴으로 찬양하면 서로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애인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기에 '찬미예수님'은 신앙인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복음전파"라고 했다. 찬미예수님을 늘 생활화하는 것은 이웃들과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뜻이자 복음화실천운동이라는 것이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가는 수원교구 평협의 힘이 느껴졌다. 새해를 시작하는 바쁜 와중에도 손수 자료를 챙겨주시고 '찬미예수님 영성운동'으로 신앙의 초심을 일깨워 주신 정태경 마티아 회장께 감사드린다.

❖ 늦었지만 수원교구 평협 50년을 축하드립니다.

수원교구 평협에 대한 소개말씀 부탁드립니다.

찬미 예수님! 수원교구 평협은 지난해 설립 50주년이라는 뜻깊은 한 해를 보냈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주님인 그리스도를 거울삼아 미래의 100년을 준비하면서 희망찬 하느님 나라 완성을 위해 더 한층 도약하는 축복과 자비의 한 해였습니다. 전 교구민의 큰 영광이고 은총의 한 해였다고 봅니다.

우리 수원교구 평협은 이용훈 마티아 교구장

주교님께서 사목교서로 선포하신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수원교구'로 만들어가기 위해 사제와 수도자, 평신도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는 효율적인 대리구제 운영을 위해 기존의 여섯 개 대리구를 통합해 2개의 대리구제로 편제를 바꾸었는데요, 현재 제1대리구장에 이성호 리노 총대리주교님, 제2대리구장에 문희중 요한세례자 교구장 대리 주교님이 사목하고 계십니다. 수원교구는 이용훈 교구장님과 두 분 대리구 주교님의 인도 아래 사제단과 수도

자, 평신도들이 사랑으로 믿고 따르며 희생과 기도를 통해 217개 본당에 95만여의 신자로 지역복음화의 터전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참여로 쇄신하는 평협 만들 것

❖ 수원교구 평협이 50년의 역사를 이어오기까지 쉬운 길은 아니었겠지요. 많은 이들의 봉사와 노력, 희생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수원교구 평협이 활성화되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역대 교구, 대리구 평협 회장님들과 각 본당 총회장님, 단체장님을 비롯한 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교구민 모두의 기도와 참여가 밑거름이 되었기에 50년의 역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반백년을 넘긴 수원교구 평협은 교구장님이 강조하신 '소통과 참여'로 더 적극적으로 제단체 회장님, 여성연합회, 그리고 1,2 대리구 평협 회장님을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꾸려가고자 합니다. 대리구평협은 지구평협과, 지구평협은 각 본당 사목평의회와 유기적으로 소통하면서 평협의 직무인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데 힘쓸 것입니다.

❖ 수원교구 평협에서는 지난해부터 '찬미예수님 영성운동'을 펼치고 계시는데요, 호응이 아주 크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찬미예수님' 하며 예수님을 찬미하잖아요. 그래서 수원교구 평협은 '예수님 따르기, 예수님답게 살기'를 생활화하여 우리 신앙을 이웃과 세상 안에 한층 더 드러내고자 찬미예수님 영성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 교구민이 올해는 물론이고 언제 어디서나 성체성사의 신비를 가슴 깊이 새겨서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섬김의 삶을 실천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은총으로 우리 신앙인이 앞장서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 이웃이 되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고 아픈 상처를 싸매줄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음의 희망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되는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희생과 사랑으로 온 세상을 변화시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찬미예수님'을 외치며 그분처럼 사랑을 실천한다면 어지러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평협은 영성지도 신부님은



▶ 지난해 11월30일 수원교구 평협 50주년 기념미사 장면



▲ 수원평협 50년사 책자 발간 뒤 축하식 진행



▲ 평신도대상 수상자들과 편집위원들이 함께했다



▲ 역대 수원평협 회장들이 모였다

물론이고 회원들끼리 서로 전화 통화를 할 때에도 '찬미예수님' 인사로 통화를 시작합니다.(웃음)

만나면 인사말 서두에 늘 '찬미예수님'

❖ '찬미예수님' 스티커를 제작해 신자들이 휴대폰과 차에 부착하고 다니셨는지요? 계획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미있는 일들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 수원교구 평협이 제작한 '찬미예수님' 스티커. 스티커 윗부분에 '언제나'라는 작은 글씨가 찍어 있다.

찬미예수님 스티커를 보급하면서 본당마다 총회장님들이 어르신들의 휴대폰 뒷면에 직접 부착해주는 따뜻한 장면들이 연출됐지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휴대폰 뒷면에 부착해 소지하고 다니십니다. 우리 수원교구 평협에서 스티커를 예쁘게 제작해서 지난해 제주에서 열린 한국평협 연수 때 잠깐 선보였는데 그때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정이 허락되면 전국 모든 신자들이 공유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미예수님 스티커 윗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언제나'라는 작은 글씨가 찍어 있습니다. '한결같이, 항상, 언제나'라는 뜻을 담고 있지요. 그 때문인지 가끔 인사말 서두에 '언제나 찬미예수님'하는 분들이 계십니다(웃음) 휴대폰 외에 차량용 스티커도 있는데, 차량 외부에 부착하도록 제작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변색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지난해 '수원교구 평협 평신도대상'을 제정하신 것으로 압니다. 훌륭한 분들이 수상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사연을 가진 분들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수원평협은 지난해 봉사대상, 공로대상, 선교대상 3개 부문에 걸쳐 평신도대상을 제정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찾아서'의 수원평협 50년사 책 제목처럼 정말 그리스도의 빛이 되실만한 분들을 백방으로 찾았습니다. 먼저 봉사대상을 수상하신 75세의 이영화 요셉씨는 당신의 평생을 다하여 봉사하신 분입니다. 수원 세류동 성당을 신축할 때 가장 큰 공로가 있으셨고 지금도



▲ 수원평협 50년사 책자

성당 일이라면 노력봉사에 주차봉사까지 도맡아 하십니다. 교회를 위한 물질 봉헌은 물론 사회공헌이나 어려운 이웃돕기에도 솔선수범하셔서 지금도 지역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른으로 살고 계십니다.

공로상은 이호실 요셉(80세), 양희택 라우렌시오(89세), 이교선 시몬(85세), 이동주 시몬(77세) 이 네 분이 공동 수상하셨습니다. 이 분들은 1920년경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던 때 봉사하시던 '금곡리 공소' 역대회장님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0~60년 전부터 현재까지 온 정신과 육신을 오로지 주님사업에 헌신적으로 매진해오셨지요. 성전 신축에 토지와 거액을 봉헌하셨고 각종 물품판매로 모은 수입은 물론 당신들의 품삤까지 교회에 다 내셨습니다. 지금도 폐품 등을 모아 만든 기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선교상을 수상하신 문현호 사비노(71세)님은 현재 대자만 60여 명이 넘는데, 대부분이 본인이 입교시킨 분들입니다. 50년대에 본당 청년회장을 시작으로 본당 총회장까지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오셨습니다. 이 분이 꾸려오신 대자회모임은 신앙 안에서나 사회적으로나 타의 모범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네 경로당 회장직을 맡아 어려운 이웃들에

게도 봉사하시고 본당에서는 성체분배 봉사자로서 신앙의 모범으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들에게 기쁨 주는 성당 만들어야

❖ 올해는 또 수원교구 평협이 어떤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열린 세미나' 개최 등으로 평신도들이 소명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성숙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수원교구 평협은 매년 전반기에 교구 본당 총회장 연수를 1박 2일 일정으로, 하반기에 하루 일정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반기에 3월 28~29일 총회장 연수를 준비 중인데 이때 열린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교구 본당 총회장님들이 가진 생활체험, 학문적 능력, 전문적 능력은 교회와 사회 안에서 새로운 복음화로 나아가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장님들 스스로 복음화 주역이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각 가정과 본당, 지구에서 올바른 목적과 비전을 가지고 신앙인으로서 봉사하는 것은 물론 지역사회의 화합과 이웃들의 행복을 위해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겸손되이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앙인의 모습을 사회의 이웃들에게 전파하는 교량 역할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중요한 연수가 될 것입니다.

❖ 수원교구 평협이 올해 특별히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에 힘쓴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구장님께서 모토로 정하신 “신앙의 기쁨 젊은이와 함께”를 실천하기 위해 수원교구 평협은 올해 청소년 신앙생활 활성화에 매진하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열정적인 젊은 사도들이 정말 필요한데, 우리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공부, 대학 진학, 친구와의 우정, 사랑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요. 청소년들에게 문제가 있을 경우 우리는 곧잘 외부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 합니다. 청소년 주인공은 빠지고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등 주변 환경 등에만 그 원인과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들의 문제는 결국 자기 자신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화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팎에서 청소년 스스로가 극복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 어른들이 먼저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합니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기쁨을 주고 희망을 주는 환경을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입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열린 마음과 높은 이상을 추구하는 진취적인 마음, 그리고 어떠한 난관에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지닌 청소년이야말로 교회를 생기 있게 하고 이 땅에 밝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원교구 평협은 젊은이들이 성당에 오면 즐겁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더 따뜻하게 맞이하고 좋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수원평협 회장직 벌써 두 번째 봉사

❖ 성당마다 미사 참례하는 신자들이 줄고 있습니다. 본당 총회장님들과 연계해서 신자들의 주일 미사 참례율을 높이는 방안을 찾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의 성당이 신자 수는 늘었지만 미사 참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수원교구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전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수원교구 평협은 올해 주일 미사 참례율 교구 평균 30% 이상 신장시키기 운동을 진행합니다. 제가 본당 총회장 봉사 때부터 시작해 대리구 평협회장으로 일할 때에도 주장하고 끊임없이 평협 사업계획으로 설정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운동입니다.

현재 우리 교구 각 본당에서 주보에 신자수와 주일미사 참례인원을 적어서 제출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면 수원교구 내 많은 본당들은 주일미사 참례율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본당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구 평협회장님들께서 지구회장님들을 통해 각 본당총회장님들과 소통하고 세밀하게 점검해서 미사참례율이 저조한 본당이 처한 여러 문제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대적 변화도 있고 날로 고령화되는 신자들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겠지만 미사참례는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 정태경 마티아 회장은 수원교구 평협회장 봉사를 두 번째 하고 있다. 제18대 수원교구 평협이던 시절인 2010년 모습. 정 회장은 봉사도 습관인지 주님 은총으로 한번 시작하니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 했다.

❖ 회장님께서 2007년부터 3년간 제18대 수원교구 평협 회장을 맡아 수원평협경제인회를 발족시키는 등 어려운 일을 해내셨습니다. 이번에 다시 수원평협 제23대 회장에 뽑혀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봉사직을 받아들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교회의 뜻에 순명하신 사연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그냥 신앙인이니까(웃음).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인이란 자신에게 허락된 봉사직이라면 순명하고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감사한 것이, 제게 건강이나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면 봉사를 하고 싶어도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봉사 일은 정신적으로 부담도 되고 문득 문득 크나 큰 책임감이 엄습해 두려울 때도 있지만 그래도 해보면 보람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도 습관인지 주님 은총으로 한번 시작하니 계속 이어지게 되더라고요.(웃음)

부모님 몰래 교리 공부하고 혼인성사까지

❖ 2014~2018년에는 수원교구 안산대리구 평협 회장도 지내신 것으로 압니다.

거절을 못해서, 그냥 봉사를 하게 됐어요. 20여 년 전부터 본당 총회장직을 수행하다보니

지구 총회장을 하게 됐고, 지구회장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 본당이 있는 안산대리구 평협회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안산대리구 평협회장 직을 수행하다 보니 수원교구 18대 평협회장직도 맡게 되었고요. 2010년에 교구 18대 평협회장 임기를 마치고 본당에서 요셉노인대학 학장을 맡았어요. 미사 때 성체분배 봉사를 하던 중에 첫 본당 주임 신부님으로 부임하신 신부님께서 제게 덜컥 본당 총회장 직분을 다시 주셨습니다. 그냥 순명했지요. 그러다보니 다시 지구평협회장, 대리구평협회장을 거쳐서 이번에 다시 23대 교구 평협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4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지금 70대 초반까지 본당, 지구, 대리구에서 각각 두 번씩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회장님께서 가톨릭 신앙을 가지게 된 사연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보니 제가 올해로 신앙생활을 한지가 50년이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었던 아내 데레사를 만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었지요. 당시 처가에서는 완고하게 사위가 신앙인이길 바라셨지만 유교 집안인 저의 부모는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의 집안에서는 신앙인들을 ‘천주 학생이’라고 부르던 시절이었거든요. 부모님께서나 친지분들이 데레사와 결혼은 허락하되 천주교를 믿는 것은 안 된다고 하셔서 갈등이 많았습니다. 부모님을 설득하기는 힘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 모르게 교리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주님의 은총으로 교리를 마치고 경기도 이천 본당에서 세례를 받고 혼인성사까지 받았습다. 제가 이 땅에서 태어나 천주교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 것, 주님 안에서 봉사하게 된 것, 이 모두가 다 주님의 은총이며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 평협 임원 연수회 사진

수도회 탐방

어머니의 길 따라 -갈레아짜 마리아의 종 수녀회

글·사진
서희정 마리아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1코린 12,12)”

2020년을 맞아 [평신도]에서는 평신도와는 다른 직분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수도회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체가 서로의 존재를 인식하고, 서로의 역할에 관심 가지며 유기적으로 활동할 때에 교회는 더욱 건강할 것이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선정하는 데 있어 비교적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수도회를 우선하였으며 그 첫 번째 수도회로 ‘봄호’에 맞춰 5월 성모 성월에 함께 기억하면 좋을 ‘갈레아짜 마리아의 종 수녀회’를 다녔습니다.

길 찾기 핸드폰 앱에 목적지를 넣었습니다. 이내 지금 현재 제 위치와 가야 할 방법, 목적지가 파란색 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지하철도 타고 버스도 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후에는 한동안 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띄엄띄엄 컨테이너 건물만 있을

뿐 아무 것도 없는 길이었습니 다. 어느 순간, 핸드폰 앱이 제대로 된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지 의심스러웠습니 다. 의심은 불안이 되고 불안해야 하느님을 찾는 못난 제 입에서는 기도가 흘러 나왔습니 다. ‘제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길이길…….’ 얼마 지나



▲ 수도회 활동



▲ 수도회 활동

지 않아 ‘마리아의 종 수녀회’ 이정표가 제 눈 앞에 나타났습니 다. 그렇게 전 목적지에 도착했습니 다.

Via Matris 어머니의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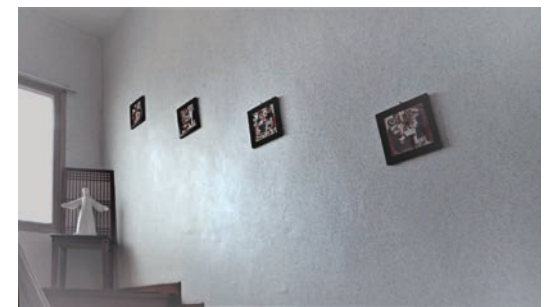
눈 앞에 수도회 건물이 보이고 나서야 제가 나선 길은 ‘불안의 길’에서 ‘안도의 길’이 되었고, 정연오 마리아가다 수녀님의 따뜻한 환대에 ‘기쁨의 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수녀원 벽면에 붙어 있는 그림으로 저를 ‘어머니의 길’로 자연스레 인도해 주었습니다. ‘어머니의 길’은 ‘마리아의 종’에서 바치는 특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수난과 고통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과 비슷한 형식으로, 성모님의 7고를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한 처, 한 처 조용히 ‘어머니의 길’을 따라 계단을 오르면서 마리아를 본받아 하느님과 이웃에게 봉사하는 수도회의 영성을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 수도원 창설자 복자 페르디난도 M. 바칠리에리 신부

‘갈레아짜 마리아의 종 수녀회’는 1862년, 복자 페르디난도 마리아 바칠리에리(B. Ferdinando Maria Baccilieri) 신부에 의해 설립된 이후 독일, 브라질, 한국, 인도네시아 4개국에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1985년에 독일에서 찾아 온 두

수녀에 의해 가족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핸드폰이 있는 것도, 저처럼 겨우 2시간 남짓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하루가 꼬박 걸리는 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두 수녀가 얼마나 많은 기도로 걸음걸음을 채웠을지,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지, 하느님께 어떤 응답을 받았을지 조용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주시듯, 두 수녀 중, 한 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7처 끝에 조용히 자리한 수녀님들의 기도



1.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서 드라실 때 시에 온을 통해 고통의 예고를 신하심을 묵상합니다. 2. 마리아께서 예수님과 요셉과 함께 예집트로 피신하심을 묵상합니다. 6. 마리아께서 십자가에서 내린 예수님을 품에 안으심을 묵상합니다. 7. 마리아께서 예수님께 서 무덤에 묻히실 때 지켜보심을 묵상합니다.

공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안나 힐데군드 베이커 수녀’였습니다. 사진 속에서였습니다.

천상의 길을 나선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의식이 없는 순간에도 수도회에서 부르는 성모 노래를 부르셨다는 수녀님은 제게 성모님을 따라 걷는 어머니의 길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말해 주고 있었습니다. 고향 땅을 떠나 낯선 한국 땅에 왔지만 부르심에 응답한 덕분에 스무 명의 자매를 얻었다고, 자매들과 함께 하느님 안에서 행복했고 지금도 행복하노라고 대답하는 듯 했습니다. “너무 갑자기 떠나셨어요. 갑자기.” 마리아의 종 수녀회 한국지부장 수녀님이신 마리아가다 수녀님께서서는 “독일 가족에게 전할 유품은 사진첩이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검소하게 사셨는지, 7고의 성모님처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한 수녀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종’이 하느님을 따라 살아가는 영성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저에게 이루어 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 38)

베이커 수녀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국 마리아의 종 수녀회에는 21명의 수녀님이 계셨습



▲ 이탈리아 수녀님께 배운 특별한 비법의 에스프레소



▲ 고 베이커 수녀님

니다. 이제 20명이 되었지만 은총의 하느님께서는 다시 1명의 청원자를 보내셨습니다. 청원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마리아가다 수녀님께서 두 눈을 반짝이며 “얼마나 예쁜지 모른다”며 자랑 하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요한 19,26-27)” 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마리아의 종 수녀회 영성 중 하나는 ‘형제적 공동 생활’입니다. 다른 지역의 한국 수도회 식구는 물론이고 이탈리아, 독일, 브라질, 인도네시아에 있는 수도자들과도 자주 소식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탈리아 수녀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특별한 비법”으로 만든 에스프레소를 맛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느 에스프레소와 다를 바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락모락 에스프레소의 향이 퍼지는가 싶더니 커피 잔 위로 동동 설탕 크림이 떠올랐습니다. 만드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고 정성이 드는 ‘특별한 커피’였습니다.

시끌시끌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녀원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나는 소리였습니다. 교육 사도직을 임하고 있는 수녀원에서는 전교 사도직으로 청주 교구, 인천 교구, 수원 교구, 서울 대교구에 있는 성당에도 파견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당에서 도움을 청하고 있지만 ‘일꾼’이 적어 모든 곳에 응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아트(Fiat: 당신 말씀대로 이루어지소서.)’ 성모님께서 하느님 말씀에 응답하신 그대로 하느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어디든 달려 가고 계신 겁니다. 이웃을 섬기며 누구를 대하든 종처럼 낮은 자세로 살고 계시니, 곳곳에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위로 받고 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의 종 수녀회 반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고통 중에도 하느님의 뜻을 찾으셨을 성모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수녀회의 삶이 오롯이 느껴졌기 때문일 겁니다. 그 반지를 낀 손 역시 하느님의 뜻을 완성시켜 나가는 데 여념이 없을 테지요. 반지를 끼기 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말이죠. 



▲ 성모상



▲ 수도회 활동



▲ 마리아의 종 수녀회 서원 반지

만남

세계 가톨릭 여성연합회 소개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우코) 이사로 활동하며



박은영 /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 전 회장, 우코 현 이사

필자가 현재 이사직을 맡고 있는 세계가톨릭여성연합회(WUCWO: World Union of Catholic Women's Organizations, 이하 우코)는 1910년 창립되어, 교황청의 승인을 받은 여성 평신도 국제 비영리단체이다. 우코의 목적은 인류 발전과 복음화의 사명을 위해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톨릭 여성들의 참여의식과 공동책임의식을 증진시키는 데에 있다. 현재 전 세계의 6개 대륙(5개 지역)에서 100여 개의 단체가 여기에 가입되어 있는데, 한국 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는 1982년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 참석하여 준회원이 되었고, 1983년 세계총회에서 정회원이 되었다. 그리고 1987년 세계총회에서는 이사국으로 선임되었다. 현재 매 4년마다 세계총회 및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서울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회를 직접 개최하기도 하였다.

필자는 2018년 10월 세네갈 다카르에서 “평화를 갈구하는 세상에 생명수를 나르는 우코 여성”이란 주제로 열린 세계총회에 참석하여, 27명의 세계이사들 중 하나로 선출되었다. 여기에서는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 파괴

와 생태계 문제 및 그와 관련된 인간소의 문제 등이 토의되었고, 이러한 상황에서 가톨릭 여성들의 영적 차원의 기여가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한국 대표단은 회의 기간 중 각국 대표들과의 면담 등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한국 가톨릭에 대한 좋은 인상을 남기하고자 노력하였다. 2018년 세계총회에서 결의되어, 현재의 회장단과 세계이사들이 향후의 우선적 활동 주제로 채택한 것은 “인간과 세상의 통합적 발전과 성화를 위해 거룩함으로 부름 받은 우코 여성”이며, 이를 위해 다음의 4가지 결의문이 선택되었다. 1) 건강한 지구 지키기, 2) 가장 취약한 가정과 구성원 돌보기, 3) 여성 차별과 폭력 없애기, 4) 성덕에로의 부르심에 응답하기.



▲ 우코 이사회 참석(둘째 줄 가운데 흰 옷을 입은 이가 필자)



▲ 우코 관계자들과 면담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이어서 필자는 2019년 5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우코 이사회에 참가하였다. 2018년 세계 총회에서 새로이 선출된 마리아 제르비노 회장과 UN 산하 기구에 파견되는 5명의 우코 대표들, 그리고 22개국에서 참석한 이사들 등 총 30명이 모여, 지난 총회 과정에서 결의된 의제와 우선과제의 실천 계획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가장 먼저, 가정 안에서 취약한 이들, 즉 여성과 아동 학대에 관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는데, 그중에서도 성폭력 학대에 관한 문제가 강력히 대두되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생태환경의 파괴 문제에 대한 논의도 매우 두드러졌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15년 회칙 '찬미받으소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느님의 피조물인 이 지구를 지키는 책임 있는 협력자'로서의 우리 역할이 강조되었고, 생태 환경 파괴로 인해 가장 고통 받게 되는 가난한 이들에 대한 도덕적 이슈도 크게 부각되었다. 나아가, 2018년 세계총회의 우선과제가 '성화'(holiness)에 관한 것이었기에 그에 따른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하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2018년 권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에 대한 워크숍 등의 교육이 강조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가정의 성화를 위해 서울대교구 가톨릭여성연합회가 10개 슬로건으로 준비하고 있는 '자녀 양육을 돕는 조부모를 통한 신앙적 가치 전달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우코 이사회는 각자의 자리에서 소명을 실천할 이사들의 신앙심을 심화하고 영적인 격려를 얻기

위해서 피정으로 시작된다. 지난 이사회의 피정 지도는 당시 국제 카리타스 의장이며 필리핀 마닐라 대교구장이었던 루이스 안토니오 타글레 추기경이 맡아서 해주는 행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성화는 우리가 주님의 모습에서 사랑의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을 때에 비로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고 말씀하신 타글레 추기경의 목소리가 아직도 생생하다. 이후 2019년 12월 8일,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타글레 추기경을 교황청 인류복음화성 장관으로 새로이 임명하기에 이른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취약한 여성과 아동을 위한 보호, 그리고 종교 간 대화 등 우코 여성들의 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지난 1월 10일에 제르비노 우코 세계회장과 담당사제, 그리고 사무총장과의 40분간 면담에서, 교황님께서는 전 세계 우코 여성들과 그 가정을 축복하시며, “교회 안에서 우코 여성들이 고유한 여성성으로 교회가 추구하는 마리아적 덕목을 적용하고 발전시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셨다.

우코는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세계 문제를 다룬다. 우리가 속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워낙 방대하기에, 오세아니아 및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세 지역으로 다시 구분하여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동아시아권에서는 한국 교회만큼 많이 성장하고 풍요로운 곳이 없음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따라서 동아시아 지역과 우코와의 유대 관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나서서 나누고 힘써야 함을 절감하게 되었다. 우코의 세계이사직 선출 과정 이후, 필자의 소명은 한국 가톨릭 여성들과 세계 가톨릭 여성들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동안 열심히 활동에 임해왔지만, 한국 가톨릭 여성들의 현실과 우코의 지향점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은 여전히 내 자신에게 하나의 숙제처럼 남아 있다. 

나눔

「일어나 비추어라」 기증식을 다녀와서

한국천주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나전칠화,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 기증되다

글 · 정리
송란희 편집위원

지난 2019년 9월 30일 한국교회에 뜻깊은 행사인 한국천주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SURGE, ILLUMINARE」의 기증식이 교황청립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열렸다. 지난 2017년 바티칸에서 작품 기증의 실무를 담당했던 필자는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요청으로 작품 설치와 기증식을 참관하기 위해 현장을 다녀왔다. 한국교회의 특징인 자생적 교회탄생과 100년간의 박해를 이겨낸 불굴의 순교정신을 한국 전통공예로 승화시킨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의 설치 및 기증식 과정과 우르바노 대학교와 한국교회의 각별한 인연을 정리하여 소개한다.



▲ 기증식 기념 미사는 인류복음화성 장관 필로니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 비바 몬시뇰, 루감브와 대주교 등이 공동집전하였다.

지난 2019년 9월 30일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한국천주교회의 과거, 현재, 미래를 담은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SURGE, ILLUMINARE」의 축복식 및 기증식이 열렸다. 우르바노 대학교 개강미사 후에 가진 이날 행사에는 필로니(Fernando Filoni) 추기경, 인류복음화성 차관 프로타제 루감브와(Protase Rugambwa) 대주교, 우르바노 대학교 기숙사 원장 비바(Vincenzo Viva) 몬시뇰, 인류복음화성 문서고 쿠냐(Luis Cūna) 몬시뇰, 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 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준철 신부, 로마 한인신학원장 정의철 신부, 작품 기획과 기증을 추진한 최기복 신부, 이백만 주교황청대사, 제작비 전액을 지원한 두산인프라코어 박용만



▲ 비바 몬시뇰이 작품 기증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작품 앞에서 포즈를 취한 이백만 주교황청대사와 김익용 소목장, 필로니 추기경, 박용만 회장(오른쪽부터)



▲ 기증식에 참석한 웅천박물관장 최기복 신부, 두산 인프라코어 박용만 회장, 김희중 대주교, 로마 한인신학원장 정의철 신부, 주교회의 사무총장 김준철 신부(왼쪽부터)



▲ 우르바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부제들. 수원교구와 마산교구 부제들이 큰 도움을 주었다.

회장 등 주요 참석자 외에 46개국에서 온 신학생 100여 명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의 시작이 그렇듯 긴 여름 방학을 끝내고 다시 모인 사람들의 반가움과 부산스러움이 우르바노 대학교 기숙사 1층 로비를 가득 채웠다. 더욱이 개강미사와 함께 특별 행사가 있다는 것이 예고되어서인지 한눈에 봐도 다양한 손님들이 계속 입구로 들어섰다. 로비에 들어선 사람들은 긴 벽을 가득 채운, 새로 설치된 나전칠화의 규모와 화려함에 감탄하며 사진을 찍느라 여념이 없었다.

세로 3m, 가로 9m, 60cm로 규모에서도 대작인 「일어나 비추어라」는 총 3개의 작품이 제작되었다. 제일 먼저 제작된 작품은 현재 경기도 여주 웅기동산청학박물관(관장 최기복 신부)에 전시 중이며, 세 번째 작품은 서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제2 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다.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에 설치된 작품은 두 번째로 제작되었다. 지난 2017년 9월 9일~11월 17일까지 열린 바티칸 특별전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 한국천주교회 230년 그리고 서울(Come in cielo così in terra : Seul e i 230 anni della Chiesa Cattolica in Corea)”에 출품되었다가 인류복음화성에 기증되었으며, 기숙사 내부 공사가 끝난 후인 지난해 9월에 설치되었다.

아름답고 장엄한 미사를 마치고 기숙사 1층 메인 로비에서 비바 몬시뇰의 사회로 기증식을 시작했다. 기증식이 열리는 로비는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방에서 사진을 찍고 작품을 보며 이야기꽃을 피워 옆 사람의 말소리가 안 들릴 정도였다. 비바 몬시뇰이 장내를 정리하는 인사를 시작했다를 때에야 겨우 소란이 가라앉았다. 몬시뇰이 주요 참석자를 일일이 소개한 후, 나전칠화 제작과 기증을 위해 애쓴 최기복 신부님이 직접 작품 설명을 하였다.

최 신부님은 작품 기획 의도와 작품에서 보여주는 상징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자세하게 설



▲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 300×960cm, 2017

명했다. 그는 “작품이 전 세계 신학생과 신부들이 오가는 이 장소에 설치된 것이 무척 감격스럽다. 각 지역에서 바티칸으로 유학을 와 공부하는 신학생과 신부들이 한국천주교회의 순교 정신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될 것 같다.”고 덧붙혔다. 또한 앞으로 “한국교회와 로마 교황성좌 간에 긴밀한 유대와 일치가 이루어지기 바란다.”는 기대도 더불어 전했다.

이어 비바 몬시뇰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의 의장이신 김희중 대주교님을 소개했다. 김 대주교님은 “한국 속담에 금강산도 식후경이라는 말이 있다. 최 신부님이 작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셨으니 어서 식사하고 자유롭게 작품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도록 짧게 인사하겠다.”는 위트 있는 인사말로 참석한 사람들을 웃게 만들었다. 그는 “다른 무엇보다 한국주교회의의 이름으로 작품을 기증하게 되어 기쁘고 특히 우르바노 대학교에 설치되어 더욱 기쁘다.”는 말을 덧붙혔다. 이어 필로니 추기경은 “최 신부님은 작품을 세로로 나누어 한국천주교회의의 과거, 현재, 미래로 설명하셨지만 나는 상하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싶다. 윗부분은 성교회의 신학적인 교리를 내포하고 있다. 하느님의 권능과 구원 섭리를 드러낸다. 아랫부분은 땅 위에 사는 인간의 모습이 들어 있다.”라며 작품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큰 박수를 받았다.

기증식의 마지막에는 미리 준비한 기증서 3부

에 필로니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가 서명을 하였으며, 기증서는 인류복음화성, 우르바노 대학교,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각 1부씩 보관하기로 했다. 필로니 추기경이 주례한 축복식을 끝으로 기념 촬영을 하고 만찬을 위해 기숙사 학생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다.

다음날 최종 점검을 하러 우르바노 대학교를 다시 찾았을 때 외국인 부제들이 작품 앞에 서서 자기나라 국기를 찾고 있었다. 그중 한 부제는 ‘왜 자신의 나라 국기는 없느냐?’고 물었다. 만일 거기에 국기가 없다면 한국전쟁 당시 UN 참전국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자 실망한 얼굴이었다. 2017년에 바티칸에서 전시를 하는 동안에도 이런 해프닝이 종종 있었다. 특히 동양 문화권에 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작품이 담고 있는 상징성을 단번에 알아보기가 쉽지 않아 궁금해 하는 부분이 많았다. 최기복 신부님과 비바 몬시뇰은 작품에 대한 친절한 설명을 위해 나전칠화 옆에 작품 설명판을 설치할 예정이며, 작품과 같은 나전칠기로 만들 계획이다. 로마로 여행을 갈 일이 있다면 꼭 우르바노 대학교를 방문해 보기를 바란다. 바티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서 기념 촬영도 하고, 세계에서 세 점뿐인 특별한 작품도 감상할 수 있다. 



▲ 2017년 바티칸 특별전에 출품된 나전칠화「일어나 비추어라」

「일어나 비추어라」 작품 설명

나전칠화 「일어나 비추어라」는 2014년 8월 프란치스코 교황의 한국 방문과 124위 한국 순교자 시복을 기념하여 제작하였다. 그래서 작품 명도 교황방한과 시복식 기념 표어인 “일어나 비추어라”로 하였다. 2014년 웅기 동산청학박물관 주관 아래 작가 김경자 골롬바 교수의 지도로 인간문화재 소목장 김의용, 자개장 강정조, 옷칠장 손대현이 협동 제작하였고 두산 인프라고어 박용만 실바노 회장이 경제적으로 후원하였다.

이 작품은 육지의 옷과 바다의 자개 그리고 인간의



▲ 우르바노 기숙사 1층 로비 벽에 나전칠화를 설치하고 있는 인간문화재 김의용 소목장(왼쪽), 나전칠화를 축성하는 필로니 추기경(오른쪽)

숨씨가 함께 어우러져 창출되는 예술작품으로 인류가 염원하는 하늘(天)·땅(地)·사람(人)의 상생화합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작품의 전체 구성은 남북한 화합과 생명문화 회복을 기원하는 뜻에서 한국의 민화〈십장생도〉를 밑그림으로 하고,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시 당부 말씀을 한국천주교회의 과거·현재·미래 세 부분으로 나누어 조형화하였다.

과거 : ‘기억의 지킴이’에서는 한국 교회의 두 가지 특성, 곧 자생적 교회탄생과 100년간의 박해를 이겨낸 불굴의 순교정신을 형상화하였다. 주어사(走魚寺)는 서양 선교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한국인의 자발적 진리탐구에 의해 이 땅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받아시킨 천진암 주어사 강학회를 표상하며, 세 마리의 잉어는 유교 사회에서 새로운 사상과 혁신을 꿈꾸던 젊은 학자들이 불교 사찰에서 천주교 교리를 연구한 끝에 한국천주교회를 탄생시킨 유교 불교 기독교의 종교화합과 창의정신을 상징하고 있다. 종묘(宗廟) 앞에서의 고문과 처형 장면은 유교와 기독교 간의 처참한 종교전쟁을 드러낸다. 그리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신앙 선조들이 고통과 죽임을 당할 때 예수님과 성모님도 고통을 같이 겪으셨음을 표현하였다.

현재 : ‘증거의 지킴이’에서는 광화문, 서소문 성지,

복자 124위, 교황강복 등을 통해 2014년 8월 16일에 거행된 서울 광화문 시복식의 감격과 결의를 되새기며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를 원용하여 시복식 표어인 “일어나 비추어라”를 상기시키려 하였다. ‘증거의 지킴이’의 실천적 증거는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새로 태어남이고, 생명의 밥이 되는 성체의 삶이므로 성체를 작품 중앙에 태양처럼 놓았으며 124위 복자들이 성체를 들고 있다.

미래 : ‘희망의 지킴이’에서는 하느님께 영광의 관을 받은 성모 마리아와 한국교회의 대표 인물 열두 분을 희망의 본보기로 제시하면서 예수님과 성모님을 본받고 따르는 것이 구원과 영생의 길임을 묵주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공동체적으로는 온 세계 인류와 우주 만물이 하느님 앞에서 기쁨의 춤을 추는 강강술래와 천상잔치가 인류의 마지막 목표이며 염원임을 한국 태극기와 한국전쟁 UN 참전국의 63개 국기, 훈민정음 28자, 신선이 하늘에서 먹는다는 과일 천도(天桃)로 조형화하였다.

교황청립 우르바노 대학교 (Pontificia Università Urbaniana)

‘전 세계 선교사 양성의 못자리’로 통하는 우르바노 대학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 제3세계 선교 전문가 양성을 지원하기 위해 교황청이 1627년 8월 1일에 설립하였다. 학교명 ‘우르바노’는 설립자 교황 우르바노 8세(Urbanus VIII)의 이름을 딴 것이다. 당시 교회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 등에 힘입어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아시아 대륙으로 선교의 발걸음을 넓혀가고 있었다. 따라서 선교사 파견이 지속적으로 요청됐고, 선교 인력 양성은 교회의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우르바노 8세 교황은 우선적으로 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할 선교사 양성을 위해 대학을 설립했다. 이후 성요한 23세(Joannes XXIII) 교황은 우르바노 대학교를 교황청립 대학으로 승격시켰다.

‘교황청립 대학교’는 교황청 교육성 감독 아래 있는 로마에 있는 교회 대학교였으나 1931년 비오 11세의 교령이 반포된 후 세계 각 지역의 주교회나 교구, 수도회 등에 의해 설립되어 교황청의 인준을 받으면 ‘교황청립 대학교’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2월에 가톨릭대학교(총장 원종철 신부)가 동북아시아 교회 최초로 교황청으로부터 교회법대학원(원장 한영만 신부) 설립 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9월에는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도 교황청립 대학교로 인준받았다.

우르바노 대학교와 한국교회의 인연

우르바노 대학교와 한국교회의 인연은 각별하다. 대구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송경정(宋庚正, 안토니오, 전아오(全俄奧, 아우구스티노) 신학생이 1919년에 우르바노 대학교로 유학을 갔다. 최초의 로마 유학생이었다. 둘은 1914년 신학교가 설립된 첫 해 입학생이었다. 1914년 9월에 입학하여 1917년 6월에 라틴어 하급반을 마치고 1917년 9월에 라틴어 상급반에 진학하여 2년 공부하다가 유학을 떠났다. 대구대교구 최덕홍 주교, 이기수 몬시뇰, 석종관 신부, 김필곤 신부 등이 당시 입학 동기였다.

두 신학생은 드망주 주교와 여행길에 올라 프랑스를 거쳐 1920년 1월 20일에 로마에 도착했다. 그리고 26일에 교황 베네딕토 15세를 알현했다. 그 자리에서 교황은 “너희들은 이미 교복을 받았다 새 옷은 아니지만 마음은 새로워지기를 바란다. 한국의 훌륭한 사제가 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그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전아오는 1922년 5월 12일 협심증으로 로마에서 사망하고, 송경정은 결핵에 걸려 1922년 4월에 귀국했다가 이듬해 5월 7일에 집에서 사망했다. 전아오의 묘는 로마 근교 캄포 베라노(Campo Verano)에 있다.



▶ 로마 우르바노 대학교의 첫 한국인 유학생 송경정(오른쪽)과 전아오, 그리고 대구대목구장 드망주 주교

근·현대 신앙의 증인들 ①

이현종 신부와 도림동 성당

글·정리
김주완 편집위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에서는 한국전쟁 당시 순교한 한국 교회의 근·현대 신앙의 증인에 대한 시복시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신앙의 증거자”인 이분들 가운데에는 어쩌면 살아생전에 직접 뵈 독자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흥식(라자로) 주교님의 바람대로 “특별히 이분들이 하늘에서 우리 교회와 남과 북의 통일을 위해 빌어주시리라.” 믿습니다.



▲ 이현종(야고보) 신부



▲ 이현종 신부-가톨릭청년 삽화

‘서울미래유산’인 도림동 성당

1930년대 서울에는 성당이 딱 세 개뿐이었습니다. 명동(당시 종현) 성당, 약현 성당, 혜화동(당시 백동) 성당. 그런데 일제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농토를 강탈당한 농민들이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서울 영등포 지역도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서울 시민에게 채소를 공급하는 조용한 근교 농업 지역이었던 영등포 일대는 이때부터 일본 자본가들에 의해 근대적 공업 지역으로 변모되었습니다. 편리한 교통·풍부한 공업용수·평평한 지형 등 입지 조건과 함께 실업자와 다름없는 이농민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평소 공소 예절을 드리고 대축일이나 나룻배로 한강을 건너 약현 성당에 갔던 영등포 지역 신자들은 1936년에 이곳이 수도권으로 편입되자 본격적으로 본당 승격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현재의 영등포 경찰서 뒤쪽에 있던 8칸짜리 공소가 1936년 5월 10일 본당 승격이 되자 이듬해 1월 당산동 2가 지역에 임시 성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신자수 증가와 성당 위치가 공업 지대의 중심부

였고 침수가 빈번한 저지대라는 점을 고려하여, 도림동 산 43번지(옛 애전학교)에 1941년 7월 20일 성당을 신축함으로써 한강 이남 최초의 성당이 되었습니다. 광복 후 행정 구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1946년 10월 본당 이름도 ‘도림동 본당’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도림동 성당은 2013년 서울시로부터 ‘서울미래유산’ 지정을 받은 유서 깊은 성당이 되었습니다.

이현종(야고보) 신부와 서봉구(마리노) 형제의 순교

1950년 4월 15일, 명동 성당에서는 이현종(李顯宗, 야고보) 부제를 비롯한 9명이 노기남(바오로) 주교에게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주님께 봉헌되던 날, 이현종 새내기 신부는 “나의 청춘을 즐겁게 하여 주시는 천주께 나아가리로다.”라며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4월 22일 각자 본당으로 발령을 받았고, 이현종 신부는 도림동 본당 제5대 보좌로 임명되어 부폰 꿈을 안고 사목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다른 본당에 비해 월등히 많은 공장 직공 등을 위해 청소년 사목을 펼칠 수 있게



▲ 도림동 성당
▲ 이현종(야고보) 신부 동상



▲ 순교기념관

된 것도 의욕을 더욱 불러 일으켰습니다.

박일규(朴一圭, 안드레아) 주임 신부를 도와 의욕적으로 사목 활동을 한 지 2개월이 조금 지난 1950년

6월 25일, 날벼락 같은 한국전쟁이 터졌습니다. 파죽지세로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그 여세를 몰아 도강 작전에 성공한 후 순식간에 영등포까지 그 손아귀에 넣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소탕전을 감행한다는 구실로 민가에 침입하고 급기야 신성한 교회에까지 그 마수를 뻗었습니다. 한강 인도교가 국군에 의해 폭파되던 6월 27일, 주위의 권유에 못 이긴 박일규 주임 신부는 이현종 보좌 신부, 본당 수녀 3명, 서봉구(마리노) 형제를 데리고 경기도 시흥의 하우현 성당으로 피난길을 떠났습니다.

도림동 본당 관할 광명리 공소까지 갔을 때, 두고 온 신자들이 생각난 이현종 신부는 미사 경본을 챙긴 뒤 서봉구 형제와 본당 동정도 살필 겸 도림동 성당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박일규 신부는

류지선(요한) 공소 회장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하우현 성당으로 떠났습니다.

7월 3일(혹은 2일) 오후 3시경 성당에 들이닥친 인민군 서너 명이 느닷없이 총부리를 이현종 신부에게 들이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뉘기야?”

“나는 이 성당에 있는 가톨릭 신부요.”

“신부? 무시게 하는 거야 신부야? 반동분자지 비? 인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악질이다.... 썰라!”

“탕, 탕, 탕”

성당 문을 나서던 이 신부는 순식간에 피투성이가 되어 그 자리에 쓰러지며 말했습니다.

“나를 죽이는 게 그렇게도 원이라면 마저 쏘시오. 당신들이 내 육신은 죽일 수 있어도 영혼은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요.”

인민군은 “너는 남의 돈을 착취하여 생활하는 자 중의 하나가 아니냐?”고 하면서 재차 총을 난사하였다.

그때 총소리를 듣고 서봉구 형제가 성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를 본 인민군 중 하나가 “너는 무엇 하는 사람이나?”고 물었습니다. “나는 이 성당 일꾼이요.”라고 대답하자, 그대로 현장에서 총을 쏘아

즉사시키고 그들은 돌아가 버렸습니다.

당시 28세였던 이현종 신부는 성품을 받았던 그 기쁨, 그 감회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백합화와 같은 순결한 청춘의 몸을 그리스도의 제물과 같이 송두리째 천주께 바쳤습니다. 사제 생활 79일 만입니다.

풍수원 본당 정규하(鄭圭夏, 아우구스티노) 신부에 의해 본당 고아원 영애원에서 자란 서봉구 형제는 정원진(鄭元鎭, 루카) 신부가 도림동 본당 제2대 주임으로 부임할 때 함께 와서 삼종을 치며 성당의 굿은일을 도맡다가 함께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현양 사업과 순교 기념관

두 분의 시신은 7월 11일(혹은 12일) 이 신부의 부친과 삼촌, 고모들에 의해 순교 현장인 사제관 뒤 공터에 가매장되었습니다. 손수 수의를 만들어 입히고, 본당 기숙사를 건축하다가 남은 널빤지를 모아 임시 관을 만들어 두 구의 시신을 입관하였습니다. 어린 시절의 이현종 신부를 지극정성으로 길러준 고모들은 “천주께서 웬만하시면 그놈들의 총알을 좀 막아주시지! 참말 성모님께서 야속하시다.”라고 울부짖으며 매우 비통해하였다고 합니다.

한국전쟁 휴전 협정이 체결된 뒤 본당에서는 1953년 10월 용산 성직자 묘지(묘 번호 41번)로 이장하였고, 1963년 9월 12일 새 성당을 신축하면서

이 성당을 이현종 신부 기념 성당으로 봉헌하였습니다. 1989년에는 이현종 신부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성당 경내에 추모비를 건립하고 ‘야고보 장학회’를 발족시켰으며, 2018년 8월 19일에는 정순택(베드로) 주교 주례로 순교 기념관 축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정순택 주교는 축복 미사 강론에서 “이현종 신부님이 성당을 지키다 공산군의 총을 맞으며 ‘내 몸은 당신들이 죽일 수 있어도 내 영혼은 빼앗아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 하느님에게 달려 있음을 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이현종 신부와 서봉구 형제의 성모님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는 돔 형태로 설계된 아담한 순교 기념관은 붉은 기와로 두 분이 흘린 순교의 피를 표현하였고, 창은 12사도를 상징하는 스테인드글라스로 장식하였습니다. 이현종 신부가 사용한 기도서와 묵주, 식기류 등이 전시된 ‘유품 전시실’이 있고, 24석 규모의 작은 ‘경당’은 차분한 분위기를 낼 수 있어 소박한 혼인 미사 장소로 요즘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순교 기념관 경당에는 서봉구 형제가 순교하기 전까지 타종하였던, 1938년 프랑스에서 제작한 종이 전시되어 있어 종의 울림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성당 마당에는 두 분의 순교 현장을 분노의 눈길로 지켜보았을 수령 200년 이상의 은행나무 두 그루가 서로 어깨를 기댄 채 오늘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 도서

『하느님의 종』 홍용호 프란치스코 보르지아 주교와 동료 80위, 시복 자료집 제2집,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2019.

『모랫말 반세기 : 도림동 성당 50년사』, 천주교 도림동 교회, 1986.

김정진, 『오호! 이현종 신부 : 순직 10주기에 즈음하여』, 『가톨릭 청년』 제14권 6호(1960. 6), 10~12쪽.

조성희 편저, 『용인 천주교회사』, 용인 천주교회사 간행위원회, 1981.

서상요, 『한국 교회의 증언자 ⑩ : 이현종 신부』, 『교회와 역사』 제63호(1980. 11), 한국교회사연구소.

나의 신앙 선조

할머니가 남겨준 유산



안지연 엘리사벳 / 서울대교구 서교동 성당

“너는 왜 천주교 신자가 됐어?”

친구들에게 이런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생각지 못한 질문에 처음엔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천주교 집안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신자가 됐던 터라, 스스로에게 ‘왜’라는 질문을 한번도 던져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천주교 신자가 된 건 부모님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고, 신앙은 제 삶을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시작이야 어찌됐든 오랜 시간 믿음을 잃지 않고 이어왔다는 건 의심의 여지없이 온전히 저의 의지이자 선택의 결과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믿음을 지속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는지 말입니다. 그건 아마도 제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가족, 그중에서도 돌아가신 할머니의 존재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할머니는 독실한 천주교 신자셨습니다. 관절이 좋지 않아 걸음이 불편했음에도 주일이면 미사를 드리기 위해 유모차에 의지해 성당을 찾았습니다. 언제나 묵주를 손에 들고 기도를 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이 어린 저의 눈에도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 할머니는 늘 지치고 고단해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당에서 기도할 때만큼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 아빠 안교환 다니엘

안 사실이지만 할아버지는 사냥부터 낚시까지 자신의 취미활동에는 적극적이었지만, 가정에는 소홀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당시 할머니는 한복집을 운영하며 가정의 역할까지 도맡고 계셨던 겁니다. 그제야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어찌면 할머니에게 기도는 삶의 불안함을 이겨내기 위한 노력이 아니었을까. 할머니의 기도 지향이 언제나 가족의 안녕이었던 걸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4남매를 키워냈지만 두 아들을 하늘로 먼저 보내고야 말았습니다. 큰일을 겪으며 우리는 혹여나 할머니

가 쓰러지시진 않을까, 가슴을 졸였던 게 기억납니다. 하지만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할머니는 손에 들린 묵주를 놓지 않으셨고,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운을 되찾았습니다. 그야말로 신앙의 힘을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바람대로 저희 아버지는 성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결혼 후 어머니는 천주교 신자가 되었고, 저와 제 동생도 유아세례를 받고 성당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가게를 하시던 부모님은 주일이면 문을 닫고 함께 미사를 드렸고 성당 봉사도 열심히 나가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친가는 물론 외가의 가족들까지 살뜰히 아끼며 돌봤습니다. 배풀었습니다. 이렇게 생활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아버지의 모습은 제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입시에 대한 부담이 컸던 고등학교 시절엔 하교 후 매일 같이 성당에 들러 성체조배를 하곤 했습니다. 그 시간은 제게 말할 수 없는 안정감을 주었고, 덕분에 힘든 시기를 문제없이 넘길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의 간절한 기도에도 아버지가 결국 하늘나라로 떠났을 때는 어린 마음에 주님에 대한 원망으로 냉담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두었던 그때조차도 절망에 빠졌을 땐 언제나 하느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와 아버지가 그랬듯 기도를 드렸습니다. 냉담을 하는 중인데도 그것만으로 기운이 났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습니다. 그런 과정을 겪으며 결국 제가 다시 돌아갈 곳은 하느님의 품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미사와 성서모임, 단체 활동 그리고 봉사까지, 저는 지금 어느 때보다 신앙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제가 더욱 겸손하고 바르게 살아가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가끔 상상해봅니다. ‘만약 내가 천주교 신자가 아니었다면 지금쯤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고 말입니다. 지금과 비슷할 수도, 혹은 전혀 다른 모습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지금보다 만족스러운 삶은 아니었을 거라 확신합니다. 할머니에서 아버지로 이어진 신앙의 본보기가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겁니다. 두 분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인 이 믿음을 저 역시 언젠가 생길 저의 가족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 유아 세례



▲ 첫 영성체

이콘이란



장궁선 예로니모 신부 / 서울대교구 이콘 연구소 소장



▲ 카타콤바의 벽화, 사자굴 속의 다니엘

이콘(Icon/είκον/Икона)은 그리스어로 모상, 형상을 뜻하는 말로 신앙의 대상과 교리서, 성서의 내용을 가시적 형태로 표현한 것 즉 성화, 성화상을 말한다.

그리스도교는 다양한 우상숭배의 환경 속에서 출발했었다. 성서를 보면 이미 구약 특히 모세오경 등을 보면 우상 숭배를 배척하는 내용이 나오고 신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의 말씀 속에 우상 숭배를 피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다. 그러기에 오늘날까지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기도하는 공간인 시나고가 등에 어떠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으로 된 장식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물론 사도들과 첫 신자들도 모두 유대인들이었기에 모세오경의 우상 숭배금지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여 어떤 형상을 묘사한다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사도 바오로 등 여러 사도들의 노력으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고 방식과 언어의 차이를 가진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점차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직접 뵈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들도 점차 세상을 떠나 이제는 그분들에게서 전해 받은 내용이 구전으로 간접적인 형태로 전해지다 보니 성서와 교리의 내용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가 생기며 여러 오류들과 이단들도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이후 글로 신약성서가 기록이 된 이후에도 문맹자들이 많아 교회에서는 조심스럽게 형상의 묘사를 통해 성서와 교리의 내용이 오류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보고 사용하는 성화, 성화상의 시작이었다. 즉 말을 하기 시작하는 아기들에게 그

림책을 통해 사물의 이름을 익히게 하고 점차 문장과 회화로 학습시켜 나가는 것과 같다고 하겠다. 즉 말과 글로만 전하는 방식에서 눈으로 보면서 교리와 성서의 내용을 생동감 있게 익히고 오류 없이 전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이 기존의 세속적인 회화의 형식을 사용하여 성서와 교리의 내용을 묘사하였는데, 이는 오늘날 로마의 카타콤바의 벽화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725년에서 842년 사이에 벌어졌던 성화상 파괴는 쟁을 겪고 나서 세속적인 미술과 성 미술을 구분 짓는 기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그에 따른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정리된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콘들인 것이다.

즉 불교 미술에서도 부처가 인간과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는 믿음에서 비롯된 삼십이상 팔십종호(三十二相八十種好)라는 기준에 따라 불화, 불상이 조성되었듯이 성화에 있어서도 세속과 구분되는 기준이 생겨난 것이다.

즉 인간적인 喜, 怒, 哀, 樂의 표정이 묘사되지 않으며 사실 있는 그대로보다는 도식적이며 상징적인 표현으로 묘사하며, 色에 따른 상징과 의미가 있으며, 작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고 그림자가 생기는 완전한 입체의 조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등의 규정이 바로 그것이었다.

이러한 초기교회미술의 전통은 11세기, 12세기까지는 동방과 서방에서는 큰 구분 없이 이 이콘의 형태는 함께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서방교회에서는 동방과 다른 민족구성과 사고방식의 차이가 있었기에 교회미술에 대한 이해도 상이하게 되어 중세를 거치며 다시금 회화적인 성화나 입체적인 조각이 허용되게 되고, 특히 르네상스라는 큰 전환점을 통해서 보다 세속적인 표현이 허용되어 오늘에까지 이르며 동방교회와 더 큰 차이점을 보여오고 있다. 그러므로 쉽게 다가가고 이해할 수 있는 성화는 되었지만 초기교회 신자들이 성화를

통해 추구하던 영적인 깊이는 약해지고 말았다.

1962년 서방교회는 즉 가톨릭에서는 로마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개최하면서 초기교회의 정신으로 되돌아갈 것을 주창하며 성화에 있어서도 초기교회 신자들의 영성과 전통을 회복하고자 이콘이 다시금 부각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이콘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제작이 로마를 비롯한 각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로 인해 한국에도 언제부터인가 이콘이 서서히 소개되기 시작했고, 이콘을 모신 성당과 수도원들도 생겨 났으며 이콘을 보다 깊이 알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똑같은 형태를 그대로 베끼는 것이 이콘이라 잘못 알고 있지만 이 세상에 똑같은 이콘은 단 한 개도 없다. 즉 교회가 정한 원칙에 따라 그려지고 비슷한 형태를 답습해 그리지만 먹지를 뒤에 대고 그대로 베끼면 그것은 이미 이콘이 아니다. 비록 부족한 솜씨라도 한 획 한 획 수를 놓듯이 정성을 다해 그릴 때 그것이 참 이콘이 된다. 즉 성서 필사와 같다고 할 수 있다.



▲ 카타콤바 벽화, 바다에 던져지는 요나



▲ 만달리온-12세기 러시아 이콘

각자 옮겨 쓰는 이의 필체가 다르지만 성서의 내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듯이 이콘은 그 형태가 다 같아 보여도 그리는 이의 기도 등의 영적 상태와 미술적 기량에 따른 차이는 있기에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에 러시아와 동방교회에서는 이콘을 **그린다**라고 하지 않고 **쓴다**라고 하며 이콘을 **본다** 하지 않고 **읽는다**라고 하고 있다.

이콘 즉 성화의 시작은 언제일까? 오늘날 그 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전해지는 몇 가지 문헌과 전승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서방 가톨릭에서는 십자가의 길 제7처에 피땀에 젖은 예수님의 얼굴을 베로니카가 천으로 닦아드린 이야기가 나온다. 이 이야기는 역사적 진위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 천에 기적적으로 새겨진 초상은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친히 남겨주신 첫 성화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동방 교회에서는 에우세비오의 교회사 1권 13장에 나오는 아브가르왕의 이야기를 성화 즉 이콘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그에 따르면 오늘날 시리아 북부에 있던 에데사라는 작은 왕국의 아브가르 왕이 중병에 걸려 고통속에 지내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 사절을 보내어 자신을 치유해주시기를 청했다고 한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지금은 네게 갈 때가 아니나 훗날 내 제자 중 하나를 네게 보내 너와 네 가문을 구원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증표로 천에 당신 얼굴을 찍어서 보내 주셨다고 한다. 이렇게 예수님에 의해 직접 만들어진 천위의 형상을 진실되며 참된 주님의 첫 성화라고 믿고 있다. 이 성화는 944년에 콘스탄티노플로 보내져 1204년까지 성 소피아 성당에 보관되다 4차 십자군 원정때(1202-1204)에 사라졌다고 한다. 십자군 전쟁은 팔레스티나 지방의 예루살렘을 비롯한 성지들을 이슬람으로부터 탈환하기 위함이 그 목적이었으나 4차 십자군 전쟁은 콘스탄티노플의 엄청난 재화를 약탈하기 위한 것으로 변질되어 위에 언급한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새겨진 천도 이때 약탈당하여 이후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동방 정교회에서는 이 첫 예수님의 이콘을 그리스어로 만달리온(Μανδύλιον-천위에 새겨진것) 또는 아케이로포이에토스(ἀχειροποίητος-손으로 만들지 않은 것)라고 부르며 모든 성화의 시작으로 보고 있으며 이후 성화들의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성화들을 제작하게 되었다. 이 성화의 모습은 위에 언급한 기적의 내용대로 예수님의 얼굴만 그려지며 몸은 묘사하지 않고 얼굴 주위에는 늘어진 천의 모습을 함께 그리기도 한다. 예수님의 머리 주위에는 후광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십자가 모양이 함께 그려지고 그 십자가의 각 측면에는 희랍어로 '존재자'(ὁ ὢν)라는 글이 쓰여 진다. 모세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느님을 뵈었을때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을 던지자 하느님께서 하셨던 답변 '존재자'즉 시작도 마침도 없이 존재하는 바로 그분이 여기의 예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후광 좌, 우에는 희랍어로 예수 그리스도의(ΙΗΣΟΥ ΧΡΙΣΤΟΥ) 약자 IC XC를 함께 적어 놓았다. 

천주교 서울 순례길 3코스 - '생명의 길'을 걷다



김영숙 리더아 / 한국평협 순교자현양위원장

드디어 3코스의 순례길을 걷기 위해 10월 26일, 2코스의 종착지였던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에 회장님을 비롯하여 각 위원회의 위원님들, 그리고 단체 회원들이 함께 모였다.

순례길 가운데 가장 긴 3코스를 걷기 위한 준비를 하며 29.5km나 되는 길을 하루에 걸을 수는 없기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의 안을 논의하였다. 그러다가 정해진 코스에서 일부 구간은 단축하고 순교지인 당고개성지와 새남터성지, 순교자들을 모셨던 용산성심신학교를 거쳐 왜고개성지

까지 잇는 순례길의 구간을 걸어 보기로 하였다.

제법 쌀쌀한 아침 바람을 느끼며 서소문밖 네거리 순교성지의 현양탑 앞에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시작기도를 했다. 순례길 가운데 가장 긴 구간이면서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순교성지들이 이어지는 '일치의 길'을 걸으며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실천하려는 결심을 굳게 하자는 회장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일치를 향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시작하자 다짐하며 당고개성지를 향하여 출발했다.

힘차게 걷다보니 어느 듯 어머니의 품속처럼



▲ 새남터 순교 성지



▲ 순례3길의 출발지는 서소문 성지



▲ 순례3길을 따라 걷는 모습

아늑하게 자리하고 있는 당고개성지에 도착했다. 1839년 기해박해가 끝나갈 무렵, 설을 앞두고 대목장에 방해되지 않게 해 달라는 상인들의 요청에 따라 서소문 처형장에서 한강가로 더 나아가 이곳에서 사형이 집행되었다. 순교자 10명 가운데 형제와 모녀지간이 있어 한 가족을 같은 날 처형하지 않는 당시의 법률에 따라 이틀에 걸쳐 처형이 이루어졌다. 10분 중에서 9분은 시성이 되었고, 어린 자식들 때문에 배교하겠다고 말했던 것이 그리 큰 죄가 되었던지 미루어졌던 최양업 신부의 어머니 이성례 마리아는 2014년 시복되었다. 위대한 어머니이신 복자 이성례 마리아와 최양업 신부를 위해 특별히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했다.

발걸음을 다시 새남터 순교성지를 향해 재촉해 본다. 신자들의 증언 기록을 보면,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새남터 형장으로 끌려가던 순

교자들의 걸음걸음이 닿았던 그 길이기에 걸음마다 더욱 마음을 새기며 걷는다.

넓은 모래사장과 무성한 갈대밭을 이룬 새남터는 조선시대 군사들의 연무장과 국가의 중죄인을 처형하던 곳이었다. 새남터 순교성지에서는 11분의 성직자와 3분의 평신도가 순교하시고, 그 중 11분의 성인과 1분의 복자가 탄생하셨다.

군문효수형을 이루어졌던 바로 그 장소를 기억하고 이 땅의 양들을 위해 기꺼이 목숨을 아끼지 않으셨던 신부님들과 신자들을 위해 기도하며 길을 나섰다.

절두산 순교성지로 향해야 하는 순례길의 코스에서 벗어나 용산성심신학교 성당으로 향한다.

옛 용산성심신학교 성당은 일반 교구 성당과는 달리 평면 형식으로 이곳 지형을 잘 이용한 성당으로 김대건 신부의 유해를 축성 당시부터 1952년까지 모시기도 했었다.

1885년 충청도 배론 신학당에서 시작하여 여주 예수성심신학교로 이어지고 1887년 지금의 위치로 이전하였던 옛 용산신학교 성당과 신학교 건물은 성소의 못자리였던 이전의 자취를 간직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순례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1942년 일제의 탄압에 의해 폐교될 때까지 세 번째 한국인 사제 강도영 신부를 포함하여 105명의 사제를 배출하고 한국 사제 양성의 요람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사적 제255호로 지정



▲ 왜고개성지

되어 보존 관리되고 있다. 성당의 내부와 외부의 아름다움도 잠시 뒤로하고 다시 발걸음은 이어져 왜고개 성지를 향한다.

왜고개성지는 기나긴 조선의 천주교 박해시기에 새남터와 서소문에서 순교하신 10분의 시신이 몇몇 신자들에 의해 비밀리에 옮겨져 머물다 가신 곳이다.

현재 군 사목의 중심인 군종교구의 국군중앙성당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은 조선의 500여 년 기와를 만드는 '와서'였는데 명동성당, 약현성당, 용산성심신학교의 벽돌들이 이곳 왜고개의 흙으로 구운 것으로 우리 곁에서 늘 순교 성인들의 발자취를 일깨워 주며 유서 깊은 교회의 사적지로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지금까지 도심의 긴 길들을 걸었고 이제 순례길은 마지막순례지인 삼성산 성지를 가는 길은 두 가지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계속하여 길을



▲ 용산신학교와 원효로 예수성심성당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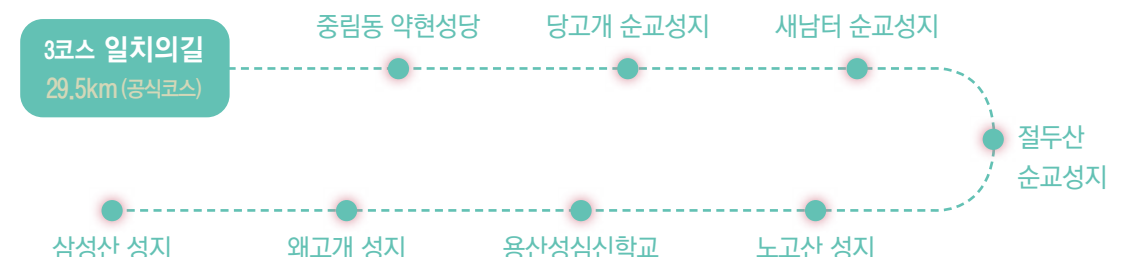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여기서 순례를 마치고 삼성산성지까지는 다음에 걷는 시간을 가지려고 한다.

순례길 구간 중에서 가장 긴 3코스의 일부를 걸으며 우리들 모두는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고 실천하며 '일치의 길'로 나아가려는 굳은 결심을 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음에 감사드렸다.

학자들의 서학서 탐구에서 시작되어 자생적으로 세워진 천주교가 박해의 광풍으로 온갖 아픔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로 향해 걸었던 그 길을 따라 걸으며 모두가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다. 복잡한 도시의 소음으로 잊고 지내며 무심히 걸었던 이 길들의 저편에 고난과 박해를 버티고 이겨내며 신앙의 씨를 뿌렸던 그 숭고함이 지금의 한국 천주교로 발전하게 되었음을 다시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시간이 되었다. 



▲ 당고개 순교성지(신계역사공원)



성지순례를 다녀오다

“로마를 걷는 순례자의 걸음”



김원창 미카엘 / 평화방송여행사

로마! 이름만으로도 찬란히 빛나는 제국의 이름이다. 천년의 세월 동안 세계 최고였으며 그 나라의 시민권을 지니는 것조차 자랑이었던 국가였다. 로마에 복속되는 것은 수치가 아니라 당연한 과정이었던 시대가 있었다. 제국이 사라진 이후로도 로마라는 이름과 문장을 이어받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힘써왔는가? 그러나 지금의 로마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유럽연합 내에서도 그다지 발언권을 크게 지니지 못하는, 이탈리아라는 한 나라의 수도일 뿐이다.

그런 로마를 순례하기 위해 떠나는 비행기의 기내 풍경은 흥미롭다. 수많은 이들이 꿈꾸는 로마 여행의 시작을 기대하면서 비장한 눈매로 여행책자에 적힌 세세한 식당까지 체크하는 젊은이들, 세계 최고 문화를 비즈니스로 연결시키는 프레젠테이션을 가다듬는 사업가들, 어디를 가든 인생샷만 남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여행객들 그리고 손에서 묵주를 놓지 않으며 성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신자들의 모습까지 로마로 향하는 비행기는 각양각색의 사람들로 북적인다.

기원 후 3세기 경에 마지막으로 세워진 로마의 아우렐리아 성벽은 여전히 거대하고 웅장하다.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자그마한 부족국가였던 로마는 지중해 전 지역을 지배했는데, 당시로서는 세상의 전부나 다름없었다. 훌륭한 황제는 신으로 격상되었으며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다. 다신교 사회였던 로마의 힘은 지구 끝까지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나 4황제 중 한 명이었던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오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로 자리매김하면서부터 그리스도교가 로마 제국의 중심이자 근원이 되기 시작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자신의 친위대가 자리하고 있던 라테라노에 성당을 지어 봉헌하였고, 로마의 사도이자 그리스



▲ 로마 나보나 광장



▲ 트레비 분수

도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무덤과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성 바오로의 유해가 모셔진 장소에 바실리카를 지어 봉헌하면서 자신이 제국을 통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하느님께 감사를 표하였다. 콘스탄티누스 황제 이후 100년도 지나지 않아 그리스도교는 로마 제국의 유일한 종교가 되었으며, 그 이후로 로마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성당들이 지어졌고 그 성당들 안에는 세계 최고 미술품들이 장식되었다. 어떤 교황은 로마에서 2주간 이상 머물지 않는 이들과는 악수조차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할 만큼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그 로마의 중심은 교회가 되어갔다.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적인 이유까지 더해지면서 성 베드로의 후계자이자 로마 교구의 교구장인 교황은 세상 모든 권력의 중심이 되었고 그가 가진 권력의 힘은 더욱 더 커져갔다. 교황의 한마디에 전쟁이 일어나고 교황의 한마디에 나라의 왕이 바뀌기도 했다.

그리고 더 이상 교황과 교회의 권력이 높아질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즈음에 교회를 향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도전은 로마에서 가장 가까운 도시에서 아주 작게 시작되었으나 그 파장은 교회를 뒤엎을 정도로 커져갔다.

로마는 기본적으로 걸어야 하는 도시이다. 버스나 택시를 타고 움직이는 것이 쉽지 않을 뿐더러 로마가 가진 위대함과 세계사 안에서의 비중 때문이라도 도시를 걷는다는 것이 예의처럼 생각되어진다. 그렇게 발품을 잘 팔기만 한다면 로마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



▲ 베드로 대성당 베르니니의 천개



▲ 베드로 대성당



▲ 세바스티아노 카타콤베



▲ 성모 마리아 대성당



▲ 스페인 광장의 계단

켈란젤로, 라파엘로, 베르니니, 카라바조까지 세상을 살아가며 한번쯤은 들어보지 않을 수 없는 천재들을 만난다. 웬만한 성당 한편에는 미술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작품들이 늘비하다. 카타콤베에 있는 성당에 들어서서 조각상 하나를 스쳐 지나가다 무심코 들여다본 작품 설명에는 “Gian Lorenzo Bernini(잔 로렌조 베르니니)”라고 적혀있고, 로마시청을 올라 V를 그리며 몇 장 사진을 찍고 난 후 귀에서 들리는 가이드의 설명은 그 계단을 설계한 이가 미켈란젤로라고 말한다. 그리 화려해 보이지도 않고 이름도 어려운 산 루이지 데 프란체시 성당의 맨 뒤에서 더위를 피할 겸 잠시 묵상하고 나가려다 웅성거리는 이들을 따라 성당 벽면을 보면 카라바조의 그림이 걸려있다. 로마에 순례자가 들러야 하는 곳이 얼마나 있는 걸까? 로마에 2주일 이상 머물지 않은 사람과 인사조차 안 한다는 이야기가 왜 생겼는지는 로마를 방문하기만 하면 절로 이해된다.

물론 아무리 순례를 온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로마에서 가장 맛있다는 젤라또 집의 주소를 챙겨오게 되며, 명품은 아니어도 이태리제 가방 하나쯤은 들고 돌아와야 한다는 소박한 소망도 지니고 온다. 결코 비싸지 않은 와인 한잔에도 감탄을 해줘야 하고, 지나가는 페라리와 포르쉐를 배경으로 사진 한 장쯤 남겨보고 싶다. 로마의 휴일에 나오는 장면이 기억난다면, 공주가 계단에서 했던 아이스크림 먹는 역할도 해보아야 한다. 당연히도 트레비 분수에 동전 하나쯤은 던져놓고 와야 한다. 여긴 로마니까 말이다.

진실의 입으로 알려진 로마시대의 하수도 뚜껑에 손을 넣고 사진만 찍고 그냥 돌아나와서는 안 된다. 그곳은 2,000년 전에 지어진 코스메디안 성당의 입구일 뿐 아니라 성 발렌티노의 유해가 모셔져 있는 장소이며 돌아온 가톨릭 정교회의 거룩한 미사가 매일 봉헌되는 장소이기도 하다.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 스페인 광장의 계단은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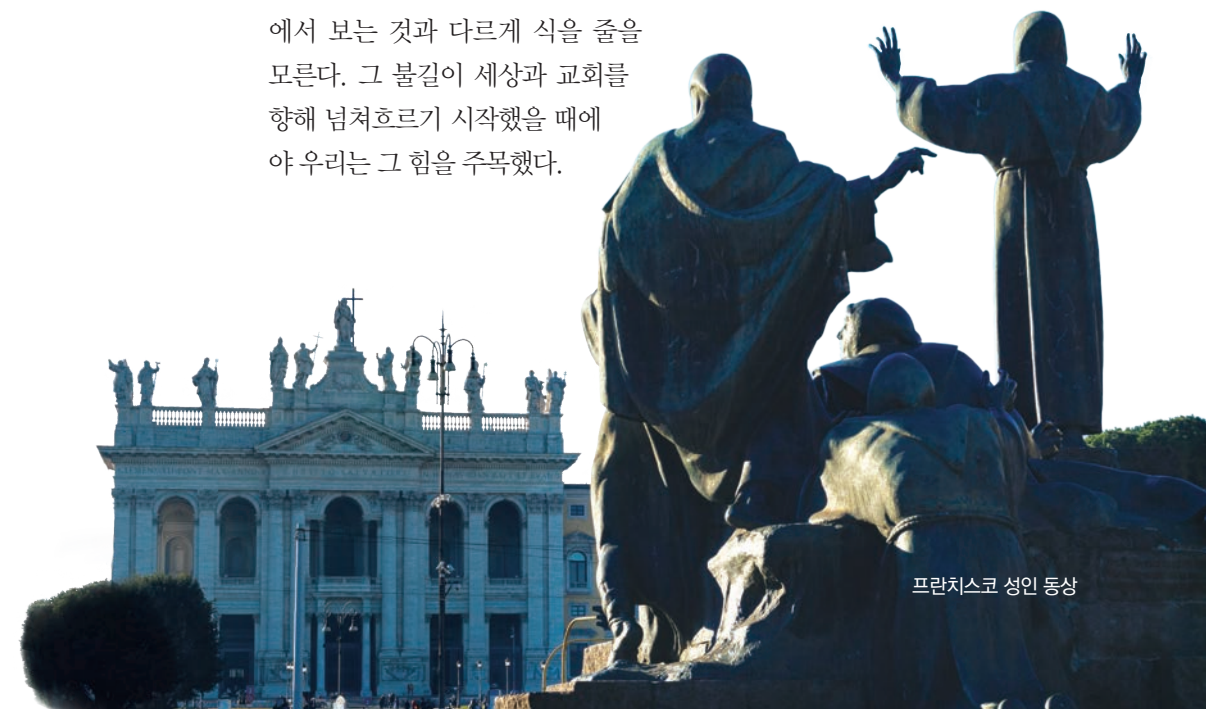
▲ 성 프란치스코(로마 프란치스코 아래파 성당)

난을 중심으로 시작된 프란치스코회의 갈래 안에서도 가장 작고 가난하게 살겠다는 미니미 수도회의 삼위일체 대성당으로 올라가는 계단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제일 더운 여름에 눈이 내린 곳에 지어졌다는 성모 마리아 성당의 이야기를 웃음 지으며 들어서는 안 되는데, 주님의 구유 조각과 예로니모 성인의 유해가 모셔진 곳이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중국교회의 일부였던 조선교회를 새로운 대목구로 만든 그레고리오 16세 교황의 칙서가 발표된 곳이기도 하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장이라는 나보나 광장에서 사진만 찍고 와서는 안 된다. 그 광장의 중심에는 초세기부터 공경받아온 아베스 성녀의 유해가 모셔져 있기 때문이다. 제발 베드로 성당에서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 베르니니의 발다키오에만 집중하지 말자. 그 성당의 지하에는 베드로 성인의 무덤이 있다. 그래서 베드로 성당인 것이다.

로마는 어디로 눈을 돌리든 빛나는 도시이다. 교회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쌓아놓은 빛나는 과거와 현재가 담겨져 있는 도시다. 약 500년 전에 만들어진 성당에는 “new”라는 말이 붙어있다. 최소한 1,000년쯤 되는 건물이어야 주목을 끌 수 있다. 이렇듯 로마는 세상의 어떤 곳과도 다른 시간계산법이 통하는 곳이다. 오래된 건축물 안에서 역사가 빛나고 있다. 그리고 그 역사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교의 나선형적인 성장의 시간도 들어있다.

교회는 끊임없이 도전을 받는다. 외부적인 도전에 힘으로 맞서야 했던 시간도 분명히 있었다. 외적인 성장을 발판으로 내적인 쇄신의 기회를 놓친 것도 반성해야 한다. 그렇지만 보다 중요한 도전은 안에서 자라난다. 그 내적인 도전의 도화선은 언제나 그리스도이며 복음이다. 800년 전 로마에서 멀지 않은 자그마한 언덕에 자리 잡은 아씨시에서 젊은 청년이 그 도전을 삶으로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미 세상 곳곳에서 그 도전의 불씨는 이어져 왔지만 교회는 주목하지 못했다. 오히려 그 도전을 억누르고자 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끓어오르는 용광로의 불길은 겉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식을 줄을 모른다. 그 불길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 넘쳐흐르기 시작했을 때에야 우리는 그 힘을 주목했다.



프란치스코 성인 동상



▲ 교황님 일반알현

세상 전체를 사랑했던 2,000년 전의 예수처럼 그 청년도 세상 전체를 사랑하기 시작했고, 죽음이 라는 절망조차 “자매”로 부르며 사랑의 화신이 되었다. 묘사대로라면, 그는 키도 작고 그리 잘생기지도 못했던 것 같다. 그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맨발을 택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하늘과 땅과 생명과 죽음마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것뿐이었다.

인간은 불완전한 만큼 위대한 존재이다. 로마의 모든 것들이 아무리 빛나도 인간만큼 빛나지 않는다. 그 모든 것을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로마에서는 그 위대한 인간이 위대함과 빛나는

자질을 갈무리하고 작아져야만 더욱 위대해 진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성 요한바오로2세가 말년에 고개조차 더 이상 제대로 들지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미사를 거행할 때마다 많은 이들이 안타까워했다. 위대한 거인처럼 세상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선포했던 교황이 저렇게 늙고 병들어 어떻게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걱정도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뒷담화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늙고 병들었던 교황은 “젊고 힘 있으며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자신이 교회를 이끌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늙고 병든 자신이 자리를 잡고 있음으로써 교회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분은 거룩한 성령임을 보여주고 싶다.”고 고백했다.

로마는 위대하다. 그리고 빛나는 도시이다. 로마에는 가톨릭의 교회의 권위와 역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순례를 하는 모든 이들은 기억해야 한다. “교회는 하늘나라로 가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이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빛나야 한다. 수백 가지의 다이아몬드 빛 같은 화려함이 아니라 그 어떤 마천장이라도 그같이 하얗게 만들 수 없을 만큼 새하얀 빛을 내야 한다. 교황이 가진 8가지 칭호 중 하나처럼 우리들 모두가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하며, 섬기고 봉사하지만 사랑만으로 그 대가를 바라는 온유함을 지녀야 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또한 한 사람의 순례자로 로마를 다니며 그 걸음걸음이 조심스러워지는 이유다. 



인터뷰

가톨릭사랑평화의 집

인터뷰 : 가톨릭사랑평화의 집 김남훈 대건안드레아 대담 · 정리: 최태교 편집위원

❖ 가톨릭사랑평화의 집 출범 계기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숙인은 1만 2천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심각한 데다 노숙자 90% 이상이 음주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가 노숙인과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한다면 노숙인들은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중독사목위원회가 알코올 · 도박 · 마약 등 여러 중독문제에 대한 예방과 치료에 노력해왔던 것처럼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이 교황님 뜻대로 ‘가난하고 소외된 이를 위한 교회’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는 교회’로 사회 적응과 자활을 통한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개원하게 되었습니다.

❖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의 조직과 주요 활동에 대하여 소개해 주십시오.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은 지난 2014년 프란치스코 교황님 방한을 기념으로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이웃을 돌보면 좋겠다는 염수정 추기경님의 뜻에 따라 인근 쪽방촌 및 노숙인 등 어려운 이웃에게 도시락을 전달하고, 쪽방촌 주민들 중 알코올중독자를



▲ 평행회장과 회원들 배달봉사

대상으로 중독교육과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역 11번 출구를 나와 후암삼거리 오른쪽에 위치한 27평 정도의 3층 건물로 급식조리실, 상담 및 교육 치료 프로그램실, 기도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매주 3회(화,목,토) 점심 도시락을 만들어 전달하고 있습니다. 회기당 필요 조직으로 조리봉사팀, 포장봉사팀, 배달봉사팀, 사례관리팀, 연계&전달(물품후원)팀으로 구성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 끝난 행사나 조만간 있을 행사 중 함께 나누고 싶은 행사가 있다면 알려 주십시오.

최근에 끝난 진행한 행사는 작년 12월 24일 성탄



▲ 12월 축성식



▲ 정중헌 모세, 박춘자 세실리아 조리장, 김남훈 대건안드레아 소장



▲ 교황대사, 허근 신부, 박용만 회장 배달 봉사



▲ 포장봉사팀



▲ 오더오브몰타코리아 조리봉사



▲ 오더오브몰타코리아 조리봉사

전야에 서울역 광장에서 개최된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을 위한 성탄축제 행사>를 진행하며 뜻 깊은 성탄절 행사를 보냈습니다. 이날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을 위한 성탄축제 행사>에는 염수정 추기경, 유경춘 주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으며, 가톨릭사랑평화의 집 봉사자들이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에게 직접 만든 따뜻한 도시락 400개와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매년 성탄행사에 많은 후원자들과 봉사자들이 함께한다면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잔치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가톨릭사랑평화의 집 활동을 해 오시면서 기쁘셨던 일과 안타까웠던 사연을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노숙인들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일하면서 나누는 삶의 기쁨과 행복을 매 순간 느낍니다. 빠른 변화보다는 조금 더디지만 '단주'와 '단도박'을 약속하고 몇 번의 실패를 했다고 고백하던 분

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실천하는 모습들, 마른 장작과 같은 몸으로 한 평 남짓한 공간에 숨을 몰아쉬던 분들이 도시락을 드시곤 살집이 늘었다며 조심스레 걸어 방문하신 후 수줍게 웃는 주민 분들... 웃는 쪽방촌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나눔은 자신이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 자신의 시간이나 재능을 소외된 이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되고 제가 나누는 것보다 더 많이 받는다는 생각에 하느님께 늘 감사하며 기쁜 마음을 가집니다.

안타까운 사연은 너무 많지만 지금 생각나는 사연은 만성알코올중독자 '유씨'(가명)를 처음 만난 날이 기억이 납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술에 취해 후암삼거리 인도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던 모습, 좁은 방에서 그렇거리는 숨을 몰아쉬던 모습, 도시락을 드리려다 문전박대를 받았던 기억, 그 후 점차 영양실조를 극복하고 단주를 실천하던 유씨는 1년이 지나 웃으며 자신도 봉사를 하겠다고 발 벗고 나서던 모습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런 봉사의

시간도 잠시 간경화로 생사를 오가는 순간 웃으며 고맙다고,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에서 함께 도와줘서 고맙다고, 외



▲ 중독교육집단상담

롭지 않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신 유씨... 조금 더 빨리 그를 만났더라면 어땠을지... 가슴이 메어 옵니다.

✦ 가톨릭 사랑평화의 집 활동에 평신도가 함께할 수 있는 활동이나 참여 방법에 대하여 설명 부탁드립니다.

함께할 수 있는 봉사활동으로는 첫째로 매주 3회(화, 목, 토) 점심시간 전에 맞춰 진행되는 봉사에 참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봉사 신청은 '함께천사'(www.join-angel.com) 가입 후 신청하여, 신청 확정 후 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사전에 두 가지 봉사 중 음식조리팀과 배달팀을 미리 선택하시는 것과 봉사참여 신청 후 확정문자를 받고 참석하시는 것입니다. 음식조리팀은 오전 9시부터 ~ 13시까지 봉사하고 있으며, 배달봉사는 10시부터~13시까지 진행됩니다. 배달봉사는 3인(또는 2인)이 1조로 편성하여 간단한 OT 및 교육을 받고 5개 구역별로 나눠 도시락을 배달합니다. 도시락 20여 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메고 오르막길과 가파른 계단을 오르내리며 후암로 구석구석을 다니기 때문에 간편한 복장과 편한 신발 착용을 권합니다.

둘째로 저희가 하는 일들을 주위 사람에게 알리는 재능기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들에게 도시락을 만들어 주고 생필품을 구입하는 비용이 이 소요됩니다. 후원금과 물품 지원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봉사자의 손길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며 후원과 지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일회성 봉사자는 있어도 지속하여 봉사를 하지 않아서 매우 아쉽습니다.

✦ 향후 계획과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천주교 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지킴이가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인간으로서의 도리이고, 또한 천주교 신자들의 실천할 애덕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쪽방 주민에게 먹거리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을 드리려고 올해는 의료방문지원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식재료 나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독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살며, 사회에 복귀하도록 꾸준한 교육과 전문기들로 구성된 상담 방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쪽방 밀집지역인 동자동 쪽방촌에는 0.8~1.2평짜리 비좁은 방에 기거하는 주민이 대략 1500명이나 됩니다. 그중에 구청과 보건소, 사례관리를 통한 발굴을 통해 선정된 주민 350명(1회 봉사이 전달 수)외에 더 많은 분들에게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을 꾸준히 하려고 합니다. 이렇듯 저희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을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감사를 드리며, 올해도 묵묵히 낮은 곳에서 소외된 분들과 함께 하기로 다짐합니다. 

주보성인과 나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
-스텔라 마리아

전윤경 스텔라 / JHK Corp 대표, 목5동 성당

저는 세례명으로 스텔라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이 칭호는 9세기부터 마리아와 연관 지어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세상의 즐거움이라는 '바다'에서 신앙생활이라는 '배'를 타고 예수를 향하여 항해하는 크리스천을 인도하는 '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자면 성모님은 성자라고 하기에는 너무 외람될 것입니다. 승천하시어 우리 신앙과 삶의 모범이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 전구하여 주시는 우리 모두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동네 친구들을 따라간 침례교회에서 처음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우연히 크리스천이



되어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고 추천으로 배정된 중학교도 개신교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기본 교리에 친숙했습니다. 중학교를 마치고 제가 배정된 학교는 계성여고였습니다. 예비소집일에 가서야 계성여고가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학교임을 알았습니다. 손목과 허리,

종아리까지 펴려지지 않도록 꼭 잡아맨 모양의 교복, 근엄하게 보이는 교장 수녀님, 입학식을 명동성당에서 미사로 했던 일 등이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던 천주교와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 2학년 때에도 성경 과목이 있긴 했지만 성가를 따로 배우지는 않았고 입학식 이후로는 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천주교 재단의 학교라고 느낄 수 있었던 건 다 같이 바치던 삼종 기도, 수녀 선생님들 그리고 등·학교 길에 항상 지나치던 명동성당 정도였습니다.

학교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학급에서 맡은 일로 가끔 가게 되는 서무과에서 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저희는 그분을 서무과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그분은 언제부터인가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라며 성모 마리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만날 때마다 성모님에 관련된 성경 말씀만이 아니라 성모님 발현에 관한 놀라운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차츰 그분 이야기에 귀를 기

울이게 되었고 제 마음 속에 성모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이끄심으로 계성여고를 마치던 해에 영세를 받아 천주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수녀님이 세례명을 정하자고 하실 때, 평소 성모님과 별을 좋아하는 제 눈에 빛나는 별 모양의 계성여고 교표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의 이름 계성(啓星)은 새벽 동쪽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새벽별을 일컬으며, 성모 마리아의 겸양을 상징하는 별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모님의 다른 이름 스텔라가 참 좋았습니다. 성모님과의 여러 인연들이 모여 저를 스텔라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렇게 스텔라가 되어 한동안 열심히 성당에도 나가고 활동도 했습니다.

결혼 후에 삶이 바쁘다는 핑계로 오랜 기간 저는 냉담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집안에서도 열심히만 하면 뭐든 될 거라는 생각에 방향도 모르고 달려갔습니다. 사는 일에 지칠 대로 지쳐버린 어느 날, 텅 빈 집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러고 있었을까요? 창박이 어둑어둑 해지기 시작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랬는지 지금도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자그마한 부인이 묵주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 맥을 위해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서 왔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성당에 나가지 않은 지가 십 수 년이 되어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부인을 거실의 소파로 안내하고 기도를 청했습니다.

그 부인은 저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 드릴까요?” 묻고는 제가 청했던 기도를 잔잔한 목소리로 해주신 후, 짧은 인사를 남기고 집을 나가셨습니다. 그 부인이 다녀가신 후 놀랍게도 얼음 같았던 저의 마음이 봄날의 시냇물처럼 녹아 내렸고 저의 발걸음은 성당을 향했습니다. 그 이름도 모르는 자매님을 통해 성모님은 저를 부르신 것만 같았습니다.

그 후 저는 다시 주님을 만나 벅찬 마음으로

지냈기에 다시는 마음에 혼란이 찾아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하나뿐인 아들이 멀리 유학을 떠났고, 걱정과 그리움으로 저는 다시 힘든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길게 이어지던 어느 날 제 생일이 되었습니다. 평소 세 식구가 함께 먹던 미역국을 남편과 둘이서 먹은 후, 남편은 출근을 했습니다. 멀리 있는 아들 생각을 하며 늘 하던 대로 라디오를 켜놓았다. 그런데 켜자마자 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 마치 제 마음을 노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는데 너무나 편하고 익숙하게 들렸습니다.

곡이 끝났을 때 DJ는 그 곡의 제목이 ‘The Star of the Sea’이고, 아일랜드 작곡가가 성모님의 보살핌을 청하며 만든 노래라고 했습니다. 성모님의 또 다른 이름인 ‘바다의 별’, 바로 스텔라라니... 그 순간 아드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 서 계시는 성모님이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 아들을 외국으로 떠나보내고 힘들어 하는 제 자신은 마치 엄살을 떨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의 마음을 어찌 그분의 통고에 견줄 수 있을까요. 비로소 저는 요란스러운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 성모님을 알게 되고 제 마음에 모신 그날 이후 항상 저를 지켜보고 계시는 성모님께서는 제 어려움을 먼저 아시고 주님께 기도로 청하시어 다시 일으켜 주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라고 당부하신 보나벤투라 성인의 말씀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빛나는 별빛에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바다의 별이신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안전한 항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모님은 불행한 죄인을 비추는 바다의 별이십니다.”

원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50주년 기념

“평신도 희년”에 본당 순례미사를 마치고



이창수 분도 / 원주교구 반곡동 성당

원주교구에서는 2019년 평신도 희년을 시작하며 여러 가지 실천사항을 발표하였다. 그중 하나가 교구 내 53개 본당을 순례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부부와 대자부부는 순례미사를 계획하였다.

몇 해 전부터 교구 내 모든 본당을 순례하며 미사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평신도 희년’을 계기로 본당 순례미사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하느님께 감사했다. 실천 다짐 문 중에서 대부, 대자와 함께라는 기준에 따라 동갑내기 대자부부(김일동 프란치스코, 이명아 프란치스카)와 함께 순례미사의 여정을 시작하였다.

2018년 11월 27일 화요일 용소막 성당을 시작으로 원주 혁신도시 내에 있는 반곡동에서 출발하였다. 미사가 끝난 후 순례미사의 첫 시작을 신부님께 알려드리고, 순례확인서에 주임신부님의 서명을 부탁드렸고 무사히 모든 본당 순례를 마치기를 바란다는 신부님의 응원의 말씀을 듣고 첫날을 마무리하였다. 이후 원주 1,2지구(2020년에는 남원주, 북원주, 서원주지구로 개편) 및 횡성 지구의 순례미사를 시작하였다. 단구동 성당에서는 이진규 제랄드 새 신부님의 첫 미사에 참례하였고, 2019년 1월 19일의 토요일 특전 미사를 지낸 흥업성당은 실내가 따뜻할 것이라고 예측하여 가벼운 옷차림으로 미사를 갔는데 얼마나 추웠던지... 이렇게 추운 성당은 처음이라며 돌아오는 차 안에서 너스레를 떨기도 한 기억이 난다. 2019년 5월 성모성월 순례 중에 영산성당, 부론성당에서 미사와 함께한 성모의 밤은 본당과는 또 다른 느낌의 성모찬송이었던 것 같다. 그리고 둔내 성당의 함형식 바오로 신부님께서서는 우리들의 순례 목적을 알고 나서 본당 사도회 임원들에게 적극 권장해야겠다는 말씀도 하였다. 남천동 성당에서는 본당 신부님의 직전 임지의 성당답게 미사 때 전례자들의 절제된 모습에서 우리 본당의 미사에 참례하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다.

2019년 7월 11일 오후 일과를 이르게 마무리하고 함백 성당에 도착하였으

나 일정 변경에 따라 미사가 없는 날이기에 그곳에서 가까운 성당을 찾으니 고한 성당이 있었다. 성당에 전화를 하니 미사시간이 촉박하였다. 그 시간까지 가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하니 신부님이 우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여 부지런히 이동하였다. 성당에 들어서니 본당 신자는 한 명도 없고 순례자인 우리 일행 4명만이 미사에 참여하였다. 미사 후 특히 이날은 본도 축일이라며 주임신부의 덕담을 듣고 귀가하였다. 영동지구의 천곡동 성당에서는 뒷동산 정자에서 세 가지가 한 나무인(삼위일체가 떠오름) 소나무를 보았고 성내동성당에서는 고해성사를 비롯한 전대사를 위한 기도과 미사에 참례하였다. 특별히 사직동 성당의 신동걸 바오로 신부는 본당 사목 목표를 정하여 교우들에게 실천하게 하였는데 첫째 기도하는 공동체, 둘째 공부하는 공동체, 셋째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를 지향하여 기억에 남았다. 우리 반곡동성당에서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았다. 주천성당 박용식 시몬 신

부는 미사 후 사제관으로 초대하여 직접 커피를 타 주면서 순례에 대한 말씀을 주었다. 올해 은퇴하는 신부님을 위해 영육 간에 건강하기를 기도하였다. 8월은 8월 3일 임계성당의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미사를 시작으로, 정선지역을 순례하고 1박을 하면서 다음날 장성 주일 6시 미사에 참례를 하였다. 도계성당의 10시30분 교중미사에서는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가 미사 영성체 후 전신자 안수 축복을 매월 첫 주 교중미사에 주는데 그날 우리들도 영광스럽게 “성령을 받으시오.”라는 안수축복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대자부부는 순례 중에 너무나 큰 하느님의 축복을 받았으며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부부도 같은 마음으로 축복을 받은 행복한 미사였다고 자축을 하였다. 미사 후 전신자 식사에 초대되어 카페 밥에 시원한 수박으로 배를 채우고 주임신부와 사도회장의 과분한 배움을 받으며 도계성당의 순례를 마쳤다.

마침내 주교좌 원동성당에서 2019년 8월 6일



▲ 2019년 5월 4일 봉산동 성당 대자부부와 손자와 함께



▲ 2019년 7월 11일 고한성당 서동신 신부님과 함께



▲ 2019년 7월 23일 주천성당 박용식 시몬 신부님과 커피 한 잔



▲ 2019년 8월 4일 도계성당 김영진 바르나바 신부님께 안수축복 받는 심재은(바르바라)

(화) 저녁미사로 본당 순례미사를 마무리하였다. 순례를 마친 기념으로 하느님께 감사 봉헌을 하고 김용성 타대오 주임 신부의 축복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53개 본당 순례를 마무리하였다. 이후 원주교구 평신도 회년 폐막미사에 순례를 다녀온 순례자들의 이야기가 담긴 순례수첩 전시회가 있었다. 삼삼오오 모여 매순간 성당에서 느꼈던 감정을 나누며 참 좋은 기회에 대해 회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교께서는 완주한 모든 이들에게 일일이 축복장을 주셨다. 순례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모여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 행복했다.

시골 본당의 미사에서 팔순 어르신이 해설과 독서를 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짝하기도 하였고, 평일 저녁미사에 본당신자가 한 분도 없어 정해진 미사시간을 미루면서 순례자들과 미사를 봉헌한 신부도 있었고, 미사에 참석한 교우들에게 별 은총표를 주던 우천성당과 성당의 연료비를 절감하고자 교육관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의 미사를 하였던 용소막, 황둔, 사북성당 등의 기억이 새삼 떠오른다. 눈보라가 치는 저녁에 몇 개의 고개를 넘으며 대화성당으로 가면서 오는 길에 대한 걱정이 앞섰지만 미사 후 부활 판공성사를 보고 귀갓길에 오르니 눈이 녹아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기도 하였다. 간혹 주보나, 성당 달력의 미사시간 안내에 따라 성당에 도착하면 미사가 없거나 시간이 변경되어 곤혹스러울 때가 있었으나 다행히 매번 미사를 볼 수 있어 이번 순례의 목표를 다 이룰 수 있었다. 우리 부부와 대자부부 4명의 의견 일치를 보아야 동행이 가능하였기에 50대 중반의 직장인들 부부가 순례를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여정이었지만 무사히 잘 마무리가 되었다. 지난 2019년 평신도 회년은 두 부부에게 하느님을 찾는 여정이었기에 미사를 마치고 귀가할 때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날들이었다.

본당순례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긴 여정에 함께해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며 특별히 평신도 회년의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고하고 순례의 여정에 많은 도움을 주신 원주교구 평신도 협의회 봉사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나를 감동시킨 작품들

한진섭 요셉 / 조각가

한진섭은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1981년 이탈리아로 건너가 까라라 국립미술대학에서 유학하였다. 10년간 이탈리아에서 작품 활동을 하며 이탈리아와 프랑스 등에서 개최된 국제조각심포지엄에 참여하여 카라라 국제조각심포지엄에서 1등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하여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귀국 후 미리 내 입구에 작업장을 마련하고 작업에 전념하고 있으며 한국조각가협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1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개최하였고, 이탈리아와 프랑스, 중국의 주요 도시에 대형작품을 다수 설치하였다. 제대, 독서대, 성수대, 성모님상을 비롯한 교회미술 작품들도 인연이 닿을 때마다 제작하였으며 그의 작품이 있는 주요 교회와 성지로 강원도 대화성당, 분당요한성당, 중계양업성당, 갈매못성지 등이 있다.

한진섭은 교회미술은 아름다움 자체를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작업하고 있으며 자신에게 주어진 조각가로서의 재능을 하느님을 찬미하는 데 봉헌하는 마음으로 작품 생활에 전념하고 있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성당 성수대

〈성수대〉 2019년 / 대리석, 53×44×139 cm /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성당, 서울

세례자 요한이 두 손을 모아 물그릇을 만들고 있는 형상의 이 성수대는 인체를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으로 단순화한 작품이다.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성당 입구에 있으며 성당을 찾는 신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자 하였다.

흰색 대리석을 그라인더와 사포로 여러 차례에 걸쳐 곱게 갈았으며 성수를 넣는 성수반은 곱게 간 후 방수액을 발라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였다.

성수대는 신자가 성당에 들어가면서 성수를 찍어 성호를 긋는 중요한 성미술이다. 이로 인해 교회마다 성수대는 필수품으로 서구의 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성수반이 있다. 본 성수대는 한국적이면서도 독창적인 형태를 통해 조각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하였다. 원래 이 형태는 팽성성당

성수대를 위해 제작, 설치하였으나 서소문성지성당에 어울리는 모습으로 새롭게 제작하였다.



양춘공소 성가정상

〈성가정상〉 2017년 / 화강석 (포천석), 98×98×223(cm) / 합덕성당 양춘공소, 대전교구

성모님이 아기예수를 안고 있고 요셉 성인이 성모님과 아기 예수 안고 있는 모습이다. 가정의 따스한 사랑을 단순한 형태 속에 담

았다. 성미술 고유의 엄격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딱딱함을 피하기 위해 형태를 부드러운 곡선으로 둥글렸고 형태의 견고함을 유지하면서도 부드러움을 최대한 살리면서 성가정의 사랑을 표현하였다.

대전교구 합덕성당의 모체인 양춘공소에 세워졌으며 포천에서 생산되는 화강암을 사용하였다.

분당성마태오성당 성가정상

〈성가정상〉 2009년 / 화강석(포천석), 350×175×173 cm / 분당성마태오성당, 분당



분당성마태오성당 앞 길가에 세워진 이 성가정상은 성모마리아와 아기예수 모자(母字)가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고 이들 뒤에 성 요셉이 두 팔

을 벌리고 가족을 묵묵히 지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있다.

성 모자가 앉아 있는 벤치에는 관람객이 앉을 수 있어서 신자들이 자연스럽게 성가정과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신자들은 주일 미사 후 자연스럽게 이곳에 앉아 성가정상을 배경으로 가족사진 찍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다. 이 작품은 길가에 있어서 이곳을 지나가는 일반인들도 지나가다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다정한 조각상을 감상할 수 있어 주민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포천화강석을 사용했으며 조각 표면에 정으로 쪼아 터치에 변화를 줌으로써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강조하였고 한국 전통조각의 미를 살리고자 하였다.



엘리사벳 씨튼 성녀상

〈씨튼 성녀상〉 2012년 / 화강석, 155×110×165 cm / 씨튼영성센터, 서울

엘리사벳 씨튼 (1774~1821)은 미국 최초 가톨릭 성녀이다. 결혼하여 자녀

를 둔 개신교 신자였으나 남편과 사별한 후 이탈리아에서 가톨릭으로 개종하였고, 미국에 돌아와서 동부의 에미츠버그에 씨튼 수도회를 설립하였다. 그녀는 어린이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다. 이 작품은 성북동 씨튼수녀회 본원에 설치한 작품으로 엘리사벳 씨튼이 어머니이자 교육자로서 아이에게 다정한 모습으로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각의 재료는 포천석 화강암으로 부드러운 곡선과 볼륨을 살려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도록 하였다. 이 작품 역시 관람자가 작품의 일부가 되어 벤치에 앉을 수 있게 하였다. 

배움

작가를 감동시킨 작품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



정성엽 바오로 / 연세대학교 작곡과 교수

얼마 전 성당의 한 자매님께서 우리 곁을 영원히 떠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좋은 심신을 가지신 분이셨고 나를 포함한 많은 분들과 좋은 유대관계를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떠나가시엔 아직 70세가 되지도 않은 젊은 나이에 보기보다 젊고 활동적이며 동안 얼굴을 가지신 분이시었기에 그분의 갑작스러운 부고에 우리 모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레지오에서 30년간 활동하시고 단장으로도 오랫동안 활동하셨던 분이였기에 장례식에서 몇 분께서 그렇게 기도도 많이 하고 봉사하시는 분이 왜 그리 갑작스럽게 떠나시게 되었는지 원망 어린 말씀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원통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그 뜻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화를 소개하기 위해 다소 먼 길을 돌아왔네요. 여러분께 소개할 영화는 ‘미라클 프롬 헤븐’이라는 미국영화입니다. 패트리시아 리건 감독의 2016년



▲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

작품이고 액션 영화에 자주 출연했던 제니퍼 가너가 주인공 엄마 역할로 나옵니다. 크리스티 빔이라는 분이 실제로 자신이 겪은 일, 즉 실화를 바탕으로 책을 냈고 그 이야기를 영화화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의 텍사스주에 너무나 단란하고 화목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 세 명을 둔 크리스티와 다정하고 신앙심 깊은 그의 남편 케빈이 있었습니다. 평화롭고 행복하던 이 가족에게 어느 날 갑자기 시련이 찾아옵니다.

바로 둘째 딸인 애나가 교회에서 즐겁게 소풍을 다녀온 후 배가 너무 아프다며 그날 먹은 것을 다 토해내는 것으로 시련은 시작됩니다.

이후 배가 너무 아프고 응급실에 몇 번 가서 치료를 받는데 이윽고 첫 번째 병원에서는 유유의 성분인 락토오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당불내증이란 증상인 것 같다는 판명을 받습니다. 이후 치료를 하지만 고통은 더 심해져 가고 두 번째 병원에서도 장폐색으로 수술을 받지만 장운동 장애로 인해 음식을 먹지 못하고 대신 위장과 장에 관을 삽입하여 음식을 넣어야 하는 고통을 평생 가져야 한다는 진단을 받습니다. 그 의사는 동료 의사 가운데 누코라는 이 분야 세계 최고 명의를 소개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티는 예약 없이 누코라는 의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있는 보스턴으로 애나를 데리고 무작정 떠나게 됩니다. 한편 크리스티가 다니는 교회에선 애나의 병에 대한 차도가 생기지 않자 같은 동료 교우들이 부모의 원죄 또는 애나의 죄 때문에 아픈 것 아니냐는 몹쓸 소리를 하게 되고 크리스티는 이에 깊은

상처를 받고 냉담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신앙에 대한 회의도 생기게 되었고요.

보스턴 소아전문 병원에서의 생활은 처음부터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누코 선생님이 워낙 세계적인 명의이다 보니 세계에서 밀려드는 환자로 인해 몇 년치 예약까지 잡혀 있는 상태.

입원은커녕 당장 올해 치료를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지만 크리스티의 간절함으로 예약 담당하는 프론트 직원에게 눈물로 호소, 이윽고 첫 번째 기적으로 보스턴에서 묵은 지 이틀만에 의사를 만나게 되어 진단을 받습니다. 여러 검사 결과 그 의사의 진단은 위장관 마비와 유사한 '가성 폐색 운동 장애'라는 병명으로 뉴런이 장의 신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종의 신경 장애라는 병명을 내리게 됩니다. 이것은 약은 있지만 그렇다고 확실하게 치료를 장담할 수 없는 일종의 불치병으로서 누코 역시 마땅하게 치료법을 아직까지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인 것이었습니다.

그리는 동안 비싼 치료비와 육체적 피로감으로 크리스티와 애나는 예민해지고 점점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쉬던 중 언니를 따라 집 앞에 오래된 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그만 오래된 가지가 부러지면서 애나는 9미터 아래의 나무 속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윽고 119가 오고 나무속에 갇힌 애나는 헬리콥터로 지역병원의 응급실로 이송되고 지역 뉴스와 방송에 나올 정도의 큰 사고를 겪게 되는데 여기서 크리스티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이웃과 친구들은 나무를 붙잡고 진정으로 무릎을 꿇고 울면서 주의 기도를 바칩니다. 여기서 두 번째 기적을 만나게 됩니다. 응급센터 의사가 하는 소리는 애나가 너무나 멀쩡하다는 것에 기적이라는 얘기를 전합니다. 전혀 다친 곳 없이 오히려 미소만 가득한 상태로 애나는 집에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적은 그다음 일어납니다.

수년간 애나를 괴롭혔던 복통이 말끔하게 사라졌다는 것.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애나는 아픈 곳 없이 너무나 멀쩡하게 언니와 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크리스티와 아빠인 케빈은 걱정 어린 마음으로 애나와 대화를 나누게 되는데 9미터 아래로 떨어져 기절했던 당시 나비의 모양을 한

천사가 애나를 이끌고 하느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 다시는 아프지 않을 것이라는 확답과 함께 숙면에서 깨어나게 되었다고 말이지요.

그리고 하느님의 말씀처럼 애나가 깨었을 때는 계속 괴롭혔던 병마에서 완전히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는 하느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며 끝이 납니다.

사실 이 영화를 제법 많은 성당에서 상영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감동을 받았고 여러 번 영화를 본 저 또한 매번 기적을 체험하며 새롭게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왜 애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을까요? 영화로 이해하기로는 시련이 있기 전보다 시련을 이겨내고 난 후 애나의 가족은 훨씬 더 하느님 앞에서 단단해져 있고 더 웃음이 많아졌으며 매사에 매우 감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아프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깨달았기 때문이겠지요.



▲ 영화 '미라클 프롬 헤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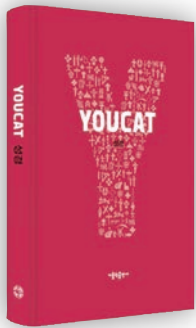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그의 너무나 큰 뜻은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때의 힘들고 가혹한 시련 때문에 하느님을 멀리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지나 적절한 시기에 우리는 그 시련의 이유를 반드시 깨닫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지금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에서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 지치고 힘든 나날들을 겪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주님을 원망하고 원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화를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항상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맞이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평신도 양서



바닥 천 영성

허성석 지음
분도출판사
128×188 / 152쪽
12,000원



YOUCAT성경

YOUCAT 재단 지음
허규 윝김
가톨릭출판사
145×225 / 432쪽
24,000원

정리
김선동 편집위원

한 수도 사제의 영적 편지. 수십 년간 성 베네딕도회 수도자로 살아온 저자가 틈틈이 쓴 글 중에서 서른다섯 편을 가려 뽑아 한데 묶었다. 저자가 걸어 온 삶의 이 편린들에는 한 사람이 입회하여 지금까지 무슨 생각과 고민을 하며 수도생활을 했는지, 그 속내가 그대로 담겨 있다. 저자는 자신의 삶이 숭한 잘못과 넘어짐의 연속이었지만, 그 길에서 내내 하느님의 이끄심을 느끼면서 그분의 자비와 은총을 깨달았다고 고백한다. 이 작은 책에서 독자는 한 사람의 인생, 한 수도 사제의 영적 여정을 마주할 것이다. 때로는 무겁고 때로는 또 가벼운 이 짧은 글들은 수도원 안에서 수도 여정을 걷는 이들뿐만 아니라, 밖에서 나뉘는 신앙 여정을 걷는 이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될 것이다. 3세기 말엽부터 4세기 중엽 사이, 그리스도교에서는 금욕가가 급증했다. 심지어 그들은 사람들을 피해 사막으로 물러나며, 자신의 삶을 세속과 분리했다. 그들은 광야(사막)를 지나며 온갖 고난과 시련에 직면했지만, 동시에 거기서 하느님 현존을 체험했고 고통 속에서 정화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두 이 사막을 지나는 여정에 발을 들여야 한다. 여기서 사막은 단지 지리적 사막만 뜻하지 않는다. 외적 사막이 외적 고요와 침묵을 보장해 주지만 참된 고독과 침묵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다. 이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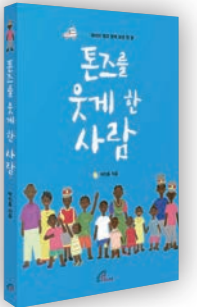
가톨릭교회의 핵심을 이루는 두 기둥이 있다. 바로 '성경'과 '성전聖傳'이다. 그중 성경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계시 현장에서 이야기하듯이, “성령의 감도로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을 담은 기록한 책이다. 그렇기에 가톨릭 신자라면 하느님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읽기란 쉽지 않다. 읽기는커녕, 먼지만 쌓여 책장에 꽂혀 있는 경우가 많다. 어떻게든 성경을 읽어 보려 하지만, 성경에 나온 내용이 대체로 이해가 안 되거나 받아들이기 힘들고, 나오는 말게 느껴지곤 하기 때문이다. 그런 성경을 쉽게 이해하고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2012년 출간된 가톨릭 청년 교리서 《YOUCAT》을 시작으로 《YOUCAT 고해성사》, 《YOUCAT 견진》, 사회 교리서인 《DOCAT》으로 신자들이 가톨릭교회의 교리를 쉽게 알도록 이끌어 주며 스테디셀러로서 꾸준히 호응을 얻은 YOUCAT 시리즈의 5번째 책이다. 이 책은 기존 YOUCAT 시리즈의 장점을 그대로 살리면서 성경에 대해 알고 싶은 가톨릭 신자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이 책을 추천했다.

여러분이 지금 펼쳐서 읽고 있는 《YOUCAT 성경》이 아주 제 마음에 듭니다. 이 책은 다양한 내용과 함께 성인聖人들과 청년들의 증언을 담고 있으며 첫 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읽도록 이끌어 줍니다. …… 여러분, 제게 기쁨을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읽으십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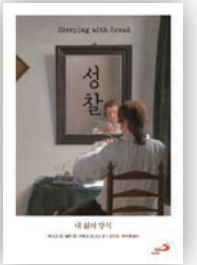
내 삶에 열린 하늘

한민택 지음
생활성서사
140×200 / 152쪽
12,000원



톤즈를 웃게 한 사람

박진홍 지음
바오로딸
147×200 / 160쪽
12,000원



성찰 - 내 삶의 양식

데니스 린 · 마테오 린 지음
김인호 · 장미희 윝김
성바오로 / 128×188
136쪽 / 9,000원

신앙을 새로 시작하는 터닝 포인트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동안 전례와 미사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채, 부담스러워하며 신앙생활을 해 왔다면, 이제 구태의연한 신앙은 벗어 던지고 신앙의 새 봄을 맞이할 때이다. 신앙생활에서 기쁨이 없다면, 신앙은 삶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활력 없는 삶으로 이어지고 만다. 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한다면 삶의 매 순간 하느님 나라를 발견하며 인생을 보다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신앙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여겨져 권태감을 느꼈을 신자들의 마음을 깨움에 보듯, 신앙으로 삶을 새롭게 ‘디자인’하자는 제안을 한다. 저자는 빛으로 오실 주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 길을 떠나야 한다고 말한다. 어딘가에 탄생했을 아기를 찾기 위해 끝까지 별을 좇았던 동방 박사들이 마침내 그분께 경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찾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한다. 알 수 없는 미래를 오로지 그분의 손길에 맡긴 채, 길 위에서 시련을 이겨 내고 포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인 것이다. 주님은 우리가 당신을 향하는 부름에 응답하기를, 자유와 사랑을 경험하기를, 그리하여 그 길의 끝에서 당신을 발견하기를 바라신다. 밤을 새우고 새벽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깨어 있으라.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실 별을 좇으라고 이 책은 말한다.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를 맞아 유머와 감동을 주는 이태석 신부의 따뜻한 이야기로 이 시대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사람을 살리는 정신의 고귀함을 전하는 책이다. 대진교구 박진홍 신부(대홍동본당 주임)가 이태석 신부님과 남수단 톤즈에서 함께 지낸 생활의 기록이다. 톤즈의 슈바이처로 불린 이태석 신부. 그곳에서 그가 어떤 말과 행동으로 톤즈 사람들과 지냈는지 따뜻한 시선으로 보여준다. 박 신부는 “톤즈 함 온나!”라는 이태석 신부의 초대에 응해 2006년 1월 중순부터 한 달가량 톤즈에서 지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톤즈에서 지내는 이태석 신부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느낌을 준다는 것이다. 두 신부의 사투리로 나누는 대화. 기존의 미디어에서는 볼 수 없었던 톤즈의 구체적 현실에 대응하는 이 신부의 모습이 박 신부의 따뜻한 글과 사진으로 전해지기 때문이다. 아프리카에서 시원한 사이다를 먹는 방법, 톤즈 어린이들이 쿠팡 동작을 흉내 내는 사진 등은 박진홍 신부이기에 가능한 이태석 신부에 관한 기록이다. 아울러 톤즈 지방에서 신의 힘으로 병을 고쳐주는 의사 역할을 하는 ‘꾸주르’라는 무속인이 이 신부에게 진료를 보러 오는 상황도 등장해 잠시 웃음을 주기도 한다.

촛촛히 막아서는 일상에 쫓겨 우리는 한 달이나 한 해를 보낼 때 비로소 그동안 꿀떡꿀떡 삼켜왔던 시간들을 꺼내어 되새김질하며 단지 몇 개의 기억들을 건져 올리곤 한다. 그러나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큰 사건들은 어느 날 갑자기 불쑥 튀어 올라 온 것이 아니라 하나씩 켜켜이 쌓이다가 마침내 터져 나온 것들이 대부분이다. 하루하루가 쌓여 일생이 되는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하겠다. 성찰은 매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성찰을 함으로써 오늘 현재 나의 모습을 분명히 보고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으며, 자신이 원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성찰은 우리가 처음에는 의미 없는 것으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순간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순간들을 깨달아 살아 갈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를 마감하면서 잠자리에 들기 전, 잠시 예수님 앞에서 자신의 ‘하루’를 더듬어 펼쳐봄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가장 깊은 경험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느님’과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한국평협, 2019년 추계 상임위원회 개최



한국천주교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한국평협)는 지난 2019년 11월 1~2일 수원교구 아론의 집에서 60여 명의 각 교구평협과 상임 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추계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0년도 활동 계획을 논의했다.

개막미사는 수원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봉헌됐다. 이 주교는 모든 성인 대축일 미사 강론에서 “한국 천주교회는 비교적 짧은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평신도들로부터 시작되어 현재 큰 나무를 이루었다. 몸집이 커진 만큼 걱정도 많다.”고 말하며 “외적 결과들이 내적 쇠신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단발성 행사보다는 잘 마련된 교육과 제도가 필요한 상황이다. 신앙생활 활성화를 위한 교육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참석한 교구평협 및 상임 단체 대표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미사 후 특강은 수원교구 제2대리구장 문희중 주교가 〈한국 천주교회의 선교 사명〉이라는 주제로 진행했

다. 주교회의 해외선교·교포사목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문 주교는 한국 천주교회의 해외 파견 선교사 현황을 소개하며 “과거 도움을 받던 우리 교회는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하였다. 세례받은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열매이기에 언제나 선교사”며 평신도 선교 사명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약 2시간 동안 이어진 추계 상임위원회의에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새 희망을’이라는 활동지표 아래 다양한 실천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특히 평화, 선교, 스마트섬, 감사 나눔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2020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였다.

이튿날 아침 ‘스마트섬’ 운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진행된 상황극과 강의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진짜 세상이 더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금 새겨주었다. 특히 스마트섬 강의를 진행한 유명일 신부(살레시오회)는 “중독의 가장 큰 이유는 고독이다. 남과 나를 비교하며 행복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스스로가 안정적으로 설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나를 돌아보며 버림을 연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스마트폰 중독 해결을 위한 마음가짐을 제시했다. 이어진 유명주 강사의 감사 나눔 강의에서는 하루에 적어도 다섯 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자는 1일 5감사 운동을 소개하며 “시작이 어렵다면 대상별, 주제별, 시간별로 나누어 생각해보자.”며 감사 나눔 팁을 전했다.

수원교회사연구소 이석원 연구실장의 〈‘기해박해’ 평신도 지도자들의 순교 영성〉을 주제로 한 두 번째 특강에서는 18년 전 선조들의 신앙을 돌아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으며, 그리스도인답게 죽기를 원했던 우리 선조들의 순교 영성에 대해 다시금 일깨우는 자리가 되었다.

폐막미사는 수원평협 담당사제인 양태영 신부가 집전했다. 양 신부는 강론에서 “우리는 산 이와 죽은 이의 통공을 믿는 사람들이다. 하느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삶을 살아간다.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서도 서로 희생하며 예수님 닮은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사 중 진행된 ‘행복한 공동체, 밝은

세상 만들기 실천 선언’을 통하여 미디어 과의존에서 벗어나 영성적인 삶을 지향하며 주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평신도가 되기를 다짐했다. 한국평협 손병선 회장은 이번 행사를 주관한 수원교구의 환대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이번 회의가 새로운 방향의 지표를 설정하는 기회가 되고, 여러 갈등이 일어나는 가운데 각자 교구 및 단체에서 역할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인사했다.

● 우리성가 공모작 발표 및 성가합창제



2019년 11월 16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콘솔레이션홀에서 한국평협 주최, 서울평협 주관으로 ‘우리성가 공모작 발표 및 성가합창제’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제13회 우리성가 작곡 공모 시상식과 수상곡 발표가 진행됐다. 올해 진행된 제13회 우리성가 작곡공모에는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임하소서 성령이여’를 작곡한 정동현 씨(베드로, 서울대교구 중앙동)가 수상했다.

시상식 이후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성음악 회원단체들의 합창제가 이어졌다. 이번 합창제에는 ‘가톨릭우리매소리 국악성가단’, ‘국악성가 우리소리합창단’, ‘서울 그레고리오 성가단’, ‘트리니타스

여성합창단’, ‘트리니타스 챔버 오케스트라’, ‘트리니타스 합창단’이 참여했다. 각 합창단은 올해 우리성가 공모 수상곡과 각자의 특색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음악을 연주하여 400여 명의 관객에게 기쁨과 감동을 전했다.

※ 이번 수상곡들은 성령강림대축일, 주님승천대축일, 삼위일체대축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악보는 한국평협 홈페이지(www.clak.or.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 2019 열린세미나 개최



서울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손병선, 담당사제 조성풍, 이하 서울평협) 평신도사도직연구소(소장 이창훈)는 2019년 10월 19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누구를 위한 누구의 교회인가 -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을 주제로 ‘2019년 열린 세미나’를 열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시노달리타스(Synodalitas, 공동합의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열린 세미나’는 시노달리타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교회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를 모색하는 자리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현순 박사(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는 “직무의 구분 없이 세례받은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백성이며, 이들 간의 친교와 공동합의성(Synodalitas)은 교회에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서 공동합의적 교회



실현을 위한 방법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강조했던 하느님 백성들 간의 '함께 감'을 제시했다.

최 박사는 공의회를 관통하는 키워드가 '상호 경청'과 '협력'이라면서, "공동합의성 개념은 민주주의나 다수결주의가 아니다. 하느님 백성들이 같은 진리의 말씀, 같은 성령의 소리를 듣고 인류의 공동선을 추구하면서 인류 구원의 도구라는 동일한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모두가 서로를 위해 존재하고 서로를 향해 있는 존재로서 동반자 의식을 가지고 함께 가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공동합의적 교회는 한 공동체의 지체들이 어떻게 각자 제 몫을 하면서 함께 가야 하는지, 어떻게 서로가 서로의 몫을 수행하도록 도와야 하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현대사회 안에서 누룩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민택 신부(수원가톨릭대학교)는 논평에서 "우리는 한국사회 안에서 교회가 처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이는 공동합의성 실현을 통해서만 진단할 수 있다. 현재의 진단과 해결 방안 모색 그리고 공동합의적 교회의 발전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앞으로 공동합의성의 한국적 수용을 위해 노력하고, 평신도들도 현재 교회가 처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교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한 패널토론과 자유토론을 통해 한국 교회를 돌아보고, 공동합의성의 실천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 후 세미나를 마무리했다.

※ 열린 세미나 자료집은 서울평협 홈페이지(www.clas.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1회 티모테오길 도보순례



춘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이종명, 담당사제 김혜중, 이하 춘천평협)는 2019년 10월 9일 제11회 38선 티모테오길 도보순례길 걷기 행사를 실시했다.

행사에는 교구장 김운회 주교를 선두로 사제, 수도자, 평신도 1,5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순례 길에는 타 교구 신자가 다른 해보다 많이 참여하여 의미를 더했으며, 앞으로 전국적인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티모테오길은 이광재(티모테오) 신부가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 사제, 수도자, 신자들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넘나들었던 길로, 양양성당에서 부소치재까지 12km를 걸으며 이 신부의 희생과 돌봄을 묵상하는 순례의 길이다.

제11회 티모테오길 도보순례는 춘천교구 설정 80주년을 맞아 교구에 대한 주님 사랑을 기억하기 위해 교구 후보인 예수성심상을 선두에 모시고 순례를 하였다. 순례 중에 교구 80주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나부터 먼저 바뀌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신앙의 기쁨을 다른 이와 나눈다'는 마음으로 신앙선조들의

믿음을 배우고, 우리 신앙에 대해 묵상하는 순례의 길이 되도록 했다.

참가자들은 이광재 신부의 영성과 숭고한 그리스도 정신을 본받으며, 이 신부가 하루빨리 시복시성의 영광이 있기를 예수성심께 청하는 기도를 하며 순례를 하였다.

● 평신도 추념의 날 행사



춘천평협은 지난 2019년 11월 11일 거두리 성당에서 춘천·남춘천지역 사목회장 및 춘천평협 임원 30여 명이 모여 평신도 추념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다.

1부 추념미사에서 거두리성당 이일환(바오로) 신부는 강론을 통해 사목교서 '주님의 빛속에 걸어가자'를 상기시키며 "평신도 사도직의 의미를 되살려 모범적으로 수행했던 평신도 지도자의 삶을 본받자."고 강조했다.

2부 추념식은 1920년 9월 죽림동본당의 모체가 됐던 공실공소에서 선교활동을 펼쳤던故 엄주언(마르티노) 회장의 묘역을 찾아 참배하였다. 춘천평협은 평신도로서 춘천지역 선교의 모범을 보였던 엄주언 회장 등 교구 발전을 위해 애쓰다 선종한 평신도 지도자들을 기리기 위해 엄주언 회장의 영명축일인 11월 11일을 '평신도 추념의 날'로 지내고 있다.

● 신년하례

춘천평협은 2020년 1월 1일 춘천교구 교구청에서 교구평협 임원 및 제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구장과 신년하례의 시간을 가졌다.

새해 첫날을 맞아 교구장 김운회 주교는 지난해 교구 설정 80주년을 보내면서 함께한 교구평협 임원들



의 노고를 치하하고, "지난 80주년의 감사와 다짐을 희망 속에 녹여내어 앞으로 맞이할 100주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준비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리고 쥐띠 해를 맞아 쥐의 슬기로움을 배워 어려움을 지혜롭게 이겨내자고 하였다. 교구장은 2020년은 '우리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에서 시작하자며 첫째, 모든 일에 감사하고 둘째, 서로의 다름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셋째, 신앙의 언어로 말하면서 참된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걸어가는 한 해를 보내자고 당부했다.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9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



대전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김광현, 이하 대전평단협)는 2019년 10월 12일 충남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운동장에서 생명나눔운동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2019 카리타스 한생명대축제'를 실시했다.

이 행사는 대전교구 평신도들이 생명의 문화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개최된 생명캠페인이다.



행사를 통해 장기 및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 등 7개의 참여 부스가 마련되었고 대전교구 초, 중, 고등학생과 지역주민 2천여 명이 참여하여 많은 호응을 얻으며, 생명존중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 제50차 정기총회



대전평단협은 2019년 12월 14일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제50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총회에는 102개의 본당 회장단과 30개의 사도직 단체 임원, 대전 평단협 상임위원 330여 명이 참석하였다.

회의에서 2019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20년 사목 지표인 '소통과 친교를 이루는 교구 공동체'를 주제로

2020년 사업계획을 의결했다. 이날 정기총회를 통해 제24대 김광현 회장이 이임하고 제25대 맹동술(시몬) 회장이 선임됐다.

● 제24대 상임위원 감사피정



대전평단협은 2019년 12월 21~22일 이틀간 수리치골 성모성심의 집에서 제24대 상임위원 피정을 개최했다.

상임위원들은 '다시 갈릴래아로'를 주제로 박인영(골롬바) 담당수녀가 준비한 알찬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지난 3년간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제24대 평단협 상임위원 임기를 마무리하였다.

이번 피정은 22일 교구장 유흥식 주교의 주례로 감사미사 봉헌하며 마쳤다. 미사 후 상임위원 19명에게 교구장 명의의 축복장이 수여됐다.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본당사목회장 및 교구 단체장, 공소회장 연수



2019년 12월 7일, 이 안나 홀에서 인천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동빈, 담당사제 이용권) 주관으로 2019년 본당 사목회장 및 교구 단체장, 공소회장 연수를 열었다.

120여 명이 참석한 연수에서는 총대리 정윤화(베드로) 신부가 '성모님의 겸손'에 대해 특강을 진행하였고, 교구장 정신철 주교의 집전으로 미사를 봉헌하였다. 정 주교는 강론에서 "지난 1년 동안에는 성서 읽기에 급급했다면, 올해는 성서에 머무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성서에 머무르기 위해서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사를 마친 후 기념촬영과 점심식사 등으로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 세계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



2020년 1월 2일 답동주교좌성당에서 교구 평협 주관으로 교구 사제단과 수도자, 신학생 및 본당 · 공소회장, 교구 단체장 및 직원과 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 평화의 날 미사 및 신년교례회가 봉헌되었다. 미사는 총대리 정윤화 신부가 집전했다. 미사 중 제22대 인천평협 신임 임원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신부는 새해 인사로 "자신의 몸을 잘 보호해서 건강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덕담을 전했다.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수원교구 평협 임원 및 상임위원 연수



수원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정태경, 영성지도신부 양태영, 이하 수원평협)는 2019년 11월 22~23일 속초 연수원으로 영성지도 신부와 상임위원 및 임원 15명이 참여한 가운데 2019년도 사업 및 결산과 2020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점검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한 해를 끝내기 전에 미리 그동안의 사업을 점검함으로써 올 한 해 사업을 잘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2020년에는 더욱 알차고 활발하게 활동할 것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 수원평협 설립 50주년 기념식

수원평협은 2019년 11월 30일 교구청 대강당에서 교구장 이용훈 주교 주례로 수원평협 설립 50주년(1969~2019)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구장 대리 문희중 주교를 비롯해 사제단과 수도자, 수원평협 역대 회장 및 교구 내 제



1·2 대리구 평협 회장과 임원진, 본당 총회장, 한국 평협 손병선 회장과 각 교구평협 회장, 봉사자, 가족 등 220여 명이 참석하였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요한 8,12)를 주제로 기념사 및 축사, 수원평협 50년 발자취 동영상 관람, 감사미사, 수원평협 50년사 봉정, 평신도 대상(봉사·공로·선교 부문) 시상, 50주년 기념 평신도 회년 이웃돕기 성금(3371만 7000원) 전달 순으로 진행됐고, 축하연으로 마무리되었다.

수원평협은 2019년 1월 19일 수원교구 평협 50년사 편찬위원회를 구성해 10개월간의 자료수집과 편집을 거쳐 50년사 기록물을 ‘봉정식’을 통해 교구장 이용훈 주교에게 전달했다.

이용훈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초대 윤공희(빅토리오)·제2대 김남수(안젤로) 두 주교님이 기틀을 다진 우리 교구는, 성경 중심·봉사자·소공동체·복음화·청소년 등 5대 중점 사목을 펼치신 최덕기(바오로) 주교님의 제3대 교구장 재임 때 급성장했다.”며 “12년간 유지해왔던 6개 대리구 제도를 2개 대리구 체제로

개편한 지 1년여를 지내며, 고유한 사목권을 바탕으로 ‘활성화(活性化)된 대리구’, ‘움직이는 지구(地區)’를 도모하는 한편, ‘교구의 안정화(安定化)’를 지향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원주교구, 평협 50주년 ‘평신도 회년’ 마무리하는 찬양 미사 봉헌



원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주, 이하 원주평협)는 2019년 11월 9일 원주 진광중고등학교에서 김지석(전 원주교구장) 주교 주례로 올 한 해 동안 보낸 ‘평신도 회년’을 마무리하는 찬양 미사를 봉헌하고, 앞으로 100년을 향해 새롭게 임할 평신도 다짐하는 교구 신앙대회를 열었다.

원주교구는 올해 평신도 회년 동안 ‘기뻐해 주십시오. 잃었던 내 양을 찾았습니다’(루카 15,6)를 주제로 본당 순례, 순례길 찾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도하고, 나눔을 베푸는 시간을 가졌다. 또 교구

민 1,100여 명이 교구 내 본당 순례에 참여하고, 회년 행사에 동참하며 전대사를 받는 은총을 누리는 등 교구 평협 설립 50주년을 맞아 풍성한 한 해를 보냈다.

원주평협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 사제, 수도자, 교구민 500여 명은 식전 행사로 생활성가 가수 김정식(로제리오) 씨와 테너 송봉섭(요한) 씨 ‘듀오 메타노이아’가 진행하는 찬양 시간을 가지고 화합을 다졌다.

미사 중 원주평협 신동주 회장의 선창에 맞춰 △ 나와 가정 성화를 위해 기도의 생활화와 피정 및 연수에 연 3회 이상 참가 △ 본당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1개 이상 단체에 가입해 적극 활동 △ 교구 발전을 위해 쉬는 교우 함께하기 운동에 지속 참여 등 3가지 구체적인 실천사항을 큰 소리로 다짐했다. 아울러 교구는 회년 기간 동안 교구 내 53개 본당을 모두 순례한 신자들과 쉬는 교우 함께하기 운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이들에게 교구장 조규만 주교 명의의 축복장을 수여했다.

김지석 주교는 미사 강론에서 “지난 50년 세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한 수많은 평신도의 정성이 있었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을 다시금 새기자.”면서 “하느님의 일을 수행하는 평신도로서 자부심을 품고, 우리 후손을 위해 교회의 큰 밑거름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동주 평협 회장은 “오늘 폐막미사는 회년을 마치는 기념이고, 앞으로 100년을 향한 도약의 시작을 알리는 순간.”이라며 “50년 뒤 교구의 모습을 바라보며 평신도들이 각 분야에서 힘을 쓸 것”이라고 말했다.

● 원주평협 정기총회

원주평협은 2020년 1월 11~12일 충북 제천 배론성지 은총의 성모 마리아 기도학교에서 제51차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 회장에 장승기(베드로) 전 학생동본당 사목회장을 선임했다. 임기는 2년. 장 신임 회장은 원주 진광중고등학교 교장을 지냈으며, 학생동본당 사목회장 겸 평협 1지구 회장을 역임했다.

장 회장은 “두렵고 떨리지만, 여러 평신도 임원들과 힘을 모아 교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평협으로 만들

어 가겠다.”면서 “올해 교구 사목 교서에 따라 기도의 일상화를 통해 모든 교구민이 가정 성화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교구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장 회장은 “순례길 복원 및 도보순례 추진, 성지해설 봉사단과 함께하는 교구 내 성지 및 유적 탐방, 교구 내 본당과 공소 순례하며 기도하기, 쉬는 교우 회두운동을 비롯해 지난해 교구 평협 50주년 회년 특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교구장 조규만 주교는 정기총회 후 미사 중 신동주 전임 회장에게 감사패를, 장승기 신임 회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조 주교는 강론을 통해 “평신도 역할은 크고 중요하다.”며 “임기를 마친 임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임원들에게 교회 일꾼으로서 수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운영위원 워크숍



2019년 10월 13일 의정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김용무, 이하 평사협) 운영위원 워크숍이 연천군 왕장면 소재 아우구스티노 수도원에서 1박 2일로 이루어졌다.

기획, 교육·연구, 사회복음화, 여성, 홍보·대외협력의 5개 분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신도 사도직 수행을 위한 전반적인 교육 및 정책을 수립하고 부서별 그 세부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데 필요한 예산 및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있었다.

• 본당사목계획 수립담당자 연수



2019년 11월 16~17일 선교사목국과 평사협은 교구 소속 각 본당 사목평의회 사목계획 작성 담당자(본당 별 3명) 대상 연수를 민족화해센터에서 가졌다.

이 연수를 통하여 공동합의성에 기초한 본당사목지표가 본당 사목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적용될 수 있

도록 그 개념과 방향을 공유하고 사목계획 수립, 담당 사목위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과 관련 지식을 나누었다.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2019년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정기총회



지난 2019년 10월 26일 대구대교구청 별관 대화합실에서 제37차 정기총회가 있었다. 총회에서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이호 신부(월성성당 부주임)의 특강과 조현권 신부(사무처장 겸 사목국장 신부)의 2020년 교구장 사목교서 해설이 있었다.

2019년 결산보고 및 경과보고 후 2020년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 절차를 거친 후 M.B.W. 대구공동체추진봉사회 김정일(티모테오) 평신도 대표가 새로운 평단협 회장에 임명됐다. 파견미사 중에 새로운 회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와 그동안 수고한 류해석 회장에게 감사패가 수여됐다.

• 2019년 대구대교구 송년의 밤



2019년 12월 20일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조환길 대주교와 장신호 보좌주교, 조현권 사무처장 신부를 모시고 교구 총회장 이동구 마티아 부부와 평신도 위원회 위원 부부들, 김정일 평단협 회장과 평단협 상임위원 부부들, 전직 평단협 회장단 등 전체 7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 해 동안 고생한 모든 이들의 수고에 대해 치하하고, 2020년을 새롭게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회 세계 가난한 이의 날 행사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길병석, 이하 청주평협)와 가톨릭 경제인회(회장 조광호)는 지난 2019년 11월 9일 청주 상당공원 내 순교자현양비 앞에서 무료 급식 봉사를 했다.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기념해 진행된 이날 무료 급식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충북지사에서 조리시설을 갖춘 이동식 차량을 대여해 6시간에 걸쳐 중앙공원 일대

에서 어르신과 노숙자 등 5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6년 11월 '자비의 희년'을 폐막하면서 연중 제33주일을 '세계 가난한 이의 날'로 지내도록 선포하였다.

• 제43회 본당평협회장단·단체장 연수 및 청주평협 정기총회



청주평협은 지난 2019년 12월 7~8일 교구 연수원에서 제43회 본당평협회장단·단체장 연수 및 청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정기총회를 실시하였다.

본 행사는 본당 평협 회장, 부회장, 총구역장, 총무 및 교구 활동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연수에서는 2020년 주님과 함께 '이웃으로, 세계로' 제3차 넷째 해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의 해에 대한 사목교서 해설과 서찰 바오로 신부의 '잃은양 찾기' 강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다음날 열린 정기총회에서는 2019년 결산과 아울러 길병석 회장의 임기가 끝나고 신임회장으로 구창서(레오) 회장이 선임되었다. 구 회장은 청주 용암동성당 평협 회장을 역임했으며, 청주평협 부회장을 역임하였다.

마산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마산교구 교구청 신축이전 설명회



지난 2019년 11월 16일 웨딩그랜드 2층에서 마산 평협이 주관한 교구청 신축 이전 설명회가 있었다. 각 본당 회장단과 교구 단체장, 평협 위원 180여 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서 교구청 설계 방향에 대해 신삼호(프란치스코 하비에르) 건축사의 보고, 추진위원장 박창균(시메온) 총대리 신부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교구장 주교의 전 교구민의 참여를 요청하는 당부 말씀이 있었다. 또한 참여한 평협 위원 및 본당 회장단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나아갈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제15회 게이트볼대회



안동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권혁기, 담당사제 김종길)는 2019년 10월 9일 안동 게이트볼구장에서 제

15회 교구장배 게이트볼대회를 개최했다. 교구 내 어르신들을 위한 게이트볼대회에 5개 지구 10개 본당 14개 팀이 참여하였다. 대회에서 문경지구 모전동성당이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교우들 간의 친교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신도의 날’ 평신도 사도직 심포지엄



광주대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신동열, 담당사제 김정용, 이하 광주평협)는 2019년 11월 16일, 평신도의 날에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대건문화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기조강연에 나선 성염 전 교황청 대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등을 인용해 “평신도는 그리스도 백성 전체의 사명 가운데에서 자기 몫을 교회와 세상 안에서 실천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며 “평신도는 저마다 세상에서 주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의 증인이 되어야 하고 살아계신 ‘하느님의 표지’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평신도 사도직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 발표에 나선 최현순 교수(서강대학교)는 진리, 사랑, 몸, 기관 등 4가지 핵심 키워드를 제시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최 교수는 “평신도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우리의 여정은 백성 안에서 이뤄지는 것이지만 나 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교회 안에서는 ‘진리의 협력자’로 표현할 수 있는데 성직자,

수도자만이 진리의 협력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 모두 진리의 협력자가 될 수 있다.”며 “세상 안에서의 평신도 역할을 공의회 문헌에 나온 표현을 빌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세상의 영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오후에는 ‘우리 시대가 요청하는 평신도 사도직’이라는 주제로 최윤복 신부(영산포성당)의 진행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평신도를 대표해 성염 전 교황청 대사와 최현순 교수, 광주대교구 청년기획팀 배지은 씨가 토론자로 참여했고, 사랑의 씨앗 수녀회 김순희 수녀와 광주대교구 성서사도직 최중훈 신부가 각각 수도자와 성직자를 대표해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에 따라 교회에서 활동하고 생활하기 위해서는 소수의 의견도 경청해주는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날 파견미사에는 광주대교구 방문 중에 있는 캐나다 에드먼튼대교구 교구장 리처드 스미스 대주교가 자리를 함께했다. 또한 조선대학교 김미숙 교수가 총연출한 무용극 ‘성(聖)김대건 안드레아’ 공연을 통해 모은 수익금을 가톨릭목포성지 조성 사업을 위해 써달라며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에게 전달하였다.

●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

광주평협은 2019년 12월 13~14일 구례 피아골피정집에서 51명의 사목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사목협의회장 직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은 평신도 사도직의 사명과 역할을 성찰하고 사목협의회와 사목협의회장의 정체성과 직무를 모색하는 교육이 마련되었다. ‘사목협의회장의 역할’에 대

해서는 김정용 신부(광주대교구 사목국장)가, ‘하느님 백성의 공동합의성’은 최현순 교수(서강대학교)가 열강해 주었다.



이후 옥현진 총대리 주교 집전의 개막미사, 교구장 김희중 대주교 집전의 파견미사로 본당 사목협의회장의 봉사직무 노고에 많은 힘을 실어 주었다.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평단협 추계회원연수



전주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회장 한병성)는 지난 2019년 10월 12일 전주교구청 사제관 성당에서 추계회원연수를 실시했다. 본 연수에는 본당 사목회장장과 제단체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고, 최현순 교수(서강대학교 전인교육원)의 특강이 마련됐다.

최현순 교수는 공동합의성의 개념과 구성요인인 삼위일체, 말씀과 성령, 성찬례 등을 신학적으로 설명하고, 공동합의성의 제도적 실현인 평의회

와 교회 구성원이 지녀야 할 태도를 짚었다. 이어서 최 교수는 “공동합의적 교회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가 평의회이며, 평의회를 통해 교회의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목자와 평신도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라고 말했다. 또 그는 “평의회를 단지 조언이나 제안으로만 받아들이고 결정권이 없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공의회의 교회론적인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동합의성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더불어 그동안 교회가 강조해 온 대화와 협력, 상호 경청과 존중, 현대의 태도와 평의회에 위원들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준비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는 최 교수의 열강에 참석자들은 큰 관심으로 공감을 나타냈다. 교구장 김선태 주교가 집전한 파견미사로 추계회원연수를 마쳤다.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

● 평협 4/4분기 상임위원회 개최

제주교구 평신도사도직협의회(회장 고용삼, 담당사제 황태중, 이하 제주평협)는 지난 2019년 10월 17일 제주교구청 2층 회의실에서 2019년도 마지막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와 추진 방향 등을 협의하였다.

또한 2020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하였으며,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평신도 영성 활성화를 위한 평협 상임위원 대상의 공부방 모임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교구평협 40주년에 걸맞은 자료를 집대성화 해나가기로 하였으며, 제주 가톨릭교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골롬반회 신부님들을 찾아 격려 및 오찬 간담회도 갖기로 하였다. 담당사제 황태중 신부도 평신도를 대표하는 임원들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매우 시의적절한 회의가 되었다.

● 평신도의 날 평신도 대표와의 간담회 개최



제주평협에서는 평신도의 날인 2019년 11월 10일, 제주시 아라미당에서 교구장 강우일 주교와 문창우 주교, 그리고 담당사제 황태중 신부를 모시고 평신도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간담회에는 교구 내 평신도를 대표하는 28개 본당 총회장을 비롯하여 32개 교구단위 단체장, 그리고 평협 자문위원과 임원 등이 함께하였다.

강우일 주교는 평신도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노력해 주고 있는 모든 대표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환경 훼손의 심각성에 대해 우려하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평신도들이 앞장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또한 깨어 있는 평신도로서의 삶을 통해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데 앞장서 나가자는 당부 말씀과 더불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골롬반회 신부님들과의 간담회 개최



제주평협은 지난 2019년 11월 14일 제주시 용담동에 위치한 골롬반회 사제관을 방문하여 미사참례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 기회를 가졌다.

90세나 되는 황 페리 신부와 주 예레미아 신부는 20대에 사제서품을 받으신 후, 제주에 사제가 없던 50년대 초부터 선교사로 파견되어 평생을 제주 가톨릭교회 발전에 헌신해 오신 분들이다. 그 고마움에 다 소나마 보답하는 기회로 평협 임원 17명이 찾아뵙게 되었다. 미사 중에는 황태중 신부가 그분들의 살아오신 감동을 전하면서 참석자들이 눈물을 자아내는 등 노고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사람을 그리워하는 신부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자주 사제관을 찾아뵙기로 하였다.

●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시설 방문 격려



제주평협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 가난한 이의 날을 맞아 가장 어렵고 가난한 시설을 찾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18일 제주시 조천읍 우진오름길 34에 있는 ‘발달장애인보호 거북이 센터’는 15명의 학생과 직원 6명이 근무하는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이다. 지난해 방문했을 때는 무허가 건물로 열악한 환경이었으나 올해는 그나마 의인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시설로 입주가 되어 모두가 환호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평생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들이라 보니 이를 뒷바라지하는 인건비 등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이번 방문에는 평협 회장단과 황태중 신부가 함께하여 금일봉을 전달하고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 2020년도 교구 신년 인사회 개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을 맞아 제주평협은

2020년 1월 1일 주교좌중양성당에서 교구 봉헌 미사를 거행한 후 신년 인사회를 개최하였다.

교구 내 전 사제와 수도자, 그리고 평신도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용삼 평협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6.25 70주년을 맞아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간절함을 성모님께 간구해 나가자고 하였으며, 또한 공동합의성에 바탕을 둔 사랑의 공동체를 열어가는 데에도 앞장서기로 하였다.

그리고 교구장 사목교서인 ‘생태영성에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소공동체’에 걸맞게 위기에 처한 지구환경을 살리는 노력에 평신도들이 앞장서 나갈 것을 강조하였다. 이후 참석자 모두는 상호 교차하면서 새해 인사를 나누는 순으로 신년 인사회를 마무리하였다.

꾸르실로 한국협의회

● 제88차 주간단회의



꾸르실로 한국협의회(회장 박영찬) 제38차 주간단회의 및 임시총회가 2019년 11월 23일 토요일 안동교구 농은수련원에서 개최되었다.

회칙 제2장 4조에 의거, 총회 구성원 31명 중 17명

이 참석하여 전차 회의록 낭독과 교구별 현황보고, 하반기 한국협의회 사업보고와 부산교구의 제18차 전국 올드레아 결과 보고를 했다. 이어진 임시총회에서는 꾸르실로 사무국 운영규정 표준화의 건, 회칙 변경의 건, 2019년 결산 및 2020년 예산(안) 심의의 건, 제19차 전국 올드레아 개최에 관한 건의 총 네 가지의 안을 발의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펼쳤다.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운동)

● 포콜라레 《새가정학교》, ‘부드러움’으로 일구는 ‘가정의 복음, 세상의 기쁨’



한국 포콜라레 《새가정운동》은 ‘가정의 복음, 세상의 기쁨’이란 주제로 2019년 10월 4~6일 세종시 정하상교육회관에서 <새가정학교>를 열었다.

부부 77쌍, 독신자 7명 등 총 161명이 참가한 이 학교에서는 가정생활에 관한 담화와 경험담, 그룹 모임, 고요한 자연 속에서 나누는 ‘부부 대화’ 시간 등을 가졌다. 특히 처음으로 중국에서 세 부부, 대만에서 두 부부, 홍콩에서 한 부부도 참가했다. 한편 영남권 <새가정학교>가 ‘부드러움’을 주제로 10월 25~27일 마산

가톨릭교육관에서 총 106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고, 두봉 주교는 참가자들을 위해 고해성사를 집전했다.

● ‘본당의 일치’를 향한 발걸음, 포콜라레 《본당 운동》 열린 피정



한국 포콜라레 《본당운동》은 2019년 10월 9일 마리아폴리 센터에서 ‘교회 - 사랑의 샘’이라는 주제로 열린 본당운동 피정을 열었다.

이번 피정에는 수원, 대전, 서울, 인천, 청주, 춘천, 전주 교구 등 7개 교구에서 평신도 122명, 수원, 대전, 청주 교구 등 3개 교구 사제 8명, 수도자 7명 등 총 137명이 참가했다. 묵상과 그룹 모임, 본당 안에서 서로 간의 사랑으로 일치의 교회를 이룬 체험들을 나누는 이번 피정에는 특히 처음으로 젊은이들이 참석해 세대 간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제16대 회장 선거

2019년 11월 2일 서울 명동 가톨릭회관에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한국이사회 제16대 이사회 회장 선거를 실시했다. 이충원 회장의 임기만료에 따라 치러진 선거에는 50여 명의 빈첸시안들이 참석하여 열띤 응원을 보냈으며,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선거가 치러졌다.

회장입후보는 3명이었으며, 이병욱(요한금구) 후보



가 정족수 17명 중 9명의 지지를 얻어 제16대 한국이사회 회장으로 당선되었으며, 당일 당선증을 김영환(로사리오) 신부로부터 교부 받았다. 임기 2020년 1월 1일부터이다.

이병욱 회장은 임기 3년간의 기간 동안 향후 목표로 본당 협의회 및 지구이사회 활성화를 위해 빈첸시오 협의회 상담소를 운영하고 1회원 1활동회원 모시기 운동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한 공동합의성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사회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위원회와 권역별 간담회를 활성화하며 원로자문단 회의 조직 등을 통해 빈첸시오회의 화해와 일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더불어 고독사 예방 운동 사업도 꾸준히 확대 추진하고, 사회적 약자의 근본적 문제 해결을 선도할 수 있는 총체적 변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즉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활동 회원(특히 청년 및 청소년)의 양성과 교육투자 확대 등을 통해 회원들이 교회 공동체의 빛과 소금이 되고, 회원들의 표양을 본받아 많은 신규 회원을 모시는 것은 물론 선교 사명 완수에도 솔선하는 평신도 사도직 단체로 거듭나기 위하여 교계 및 사회단체 및 조직과의 연대사업 확대 추진 등을 통해 가난의 근본적 해결과 사회적 약자의 대변 등에 앞장서는 한편 회의 위상 제고에도 힘쓰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 회장의 취임식은 2월 22일 서울대교구 대방동성당에서 개최된 제38차 빈첸시오 한국이사회 정기총회에서 진행됐다. 미사는 유경춘 주교가 집전했고, 빈

첸시안 200여 명이 초청됐다. 총회에서는 신임회장장과 전임회장의 이·취임식과 고독사예방운동 발대식,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의 이사회 승인 등이 있었다.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 2019년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 피정



전국가톨릭경제인협의회(회장 윤대인, 담당사제 임인섭)는 협의회 산하 7개 교구 총 7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11월 8~9일 부산교구 양산 영성의 집에서 2019년 피정을 실시하였다. 이날 이병주 신부(시몬 영성의 집 원장)의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주제로 영성 강의가 있었고, 미사는 부산교구장 손삼석 주교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 제37차 정기총회 및 전국 회장단 피정 개최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회장 양지수, 담당사제 김용태)는 2019년 11월 22~23일 서울 한남동 콘벤투알 피정의 집에서 각 교구 시각장애인선교회 회장단과 봉사자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차 정기총회와 회장단 피정을 개최하였다.

22일에는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활성화와 제고 전략’이라는 강의와 질의·응답, 회장단 회의가 진행되었고, 23일에는



총회에서 사업 및 예·결산 승인, 회칙 개정 절차가 있었다.

전국에서 모인 각 선교회 임원과 봉사자들은 지난해 활동과 신년 계획을 나누며 서로 격려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시각 장애인들에게 전하는 선교회의 소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열의를 다지며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

● 한가협 가을 피정



한국가톨릭여성단체협의회(회장 유경희, 이하 한가협)는 2019년 10월 21일 전주교구 초남이성지에서 한가협 임원 및 전주교구 여성연합회원이 함께한 가운데 가을 피정을 실시하였다.

피정은 12개 교구 한가협 임원 79명과 전주교구 여성연합회원 270명이 참석해 이금재(마르코) 지도신부의 성시간을 시작으로 협의회가 하느님 안에서 하나 되어 가는 은총의 시간이 되었다.

초남이성지 김성봉(프레드릭) 신부는 '네 마음을 지켜라'라는 영성 강의를 통해 참가자들이 각자의 신앙

을 되돌아보며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영성을 불어 넣어 주었다. 김 신부의 강의는 초남이 순교자들의 삶을 알 수 있도록 했으며,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삶 안에서 순교의 삶을 찾아보고 실천하도록 용기와 희망을 주기에 충분했다.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간호수도자 영성연수



한국가톨릭간호사협회 간호수도자 영성연수가 목포 산정동 레지오마리아기념관에서 2019년 11월 14일부터 16일까지 2박 3일간 진행되었다.

연수를 위해 서울성모병원, 은평성모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부천성모병원, 인천성모병원, 국제성모병원, 성빈센트병원,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천주성삼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부산 메리놀병원, 부산성모병원, 서천군 노인요양원 13개 병원 8개 수도회의 38명의 간호수녀들이 '두려워 말고 복음을 선포하여라.'(마태 10,26)라는 주제로 모였다.

이번 수도자 연수는 바다와 자연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며, 특별히 병자를 돌보는 가운데 하느님을 만나는 수도자로서 매 순간 열정으로 하느님의 뜻을 찾으며 하느님만을 바라는 수도적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었다.

Editor's Letter 2020 경자년을 맞이하며

2020년은 경자년으로 쥐띠의 해이다. 육십 간지 중에서 37번째로서 경이라는 한자는 백색을 나타내고 자라는 한자는 쥐를 뜻하고 있으므로 흰쥐를 나타낸다. IT시대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기 중 하나가 마우스라는 사실은 흰쥐가 2020년에도 우리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스티브 잡스가 1980년에 도입한 마우스는 IT시대의 새로운 장을 열어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마찬가지로 그는 스마트폰의 개념을 도입하여 손에 쥐는 컴퓨터의 시대를 열었다. PC를 중심으로 인터넷에 열광하던 인류에게 스마트폰을 도입하여 손바닥 안에서 세상을 관조할 수 있는 시대를 연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의 일상생활에 스마트폰이 깊숙이 침투하여 가족보다 더 가깝게 자리 잡게 되었으며 한시라도 떨어지면 불안해하는 금단의 현상을 보이는 이들도 많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다. 평협에서는 금년에 스마트 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스마트폰 과의존에서 벗어나 휴식과 쉼을 통하여 영육간의 건강을 얻도록 하자는 것이 목표이다. 스마트폰 중독은 폐인까지는 이르게 하지는 않으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빠져드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호에서는 스마트 씬 운동을 전개하는 김민수 신부와 오현희 운동본부장을 통하여 천주교의 스마트 씬 운동을 알아보고 또한 IT가 생활화된 평신도의 시각을 통하여 스마트 씬 운동의 다른 대안도 검토하여 보았다.

이번 호부터 세 가지의 새로운 내용을 연재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가 교회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콘(icon)에 대한 내용이다. 장궁선 이콘연구소 소장 신부가 다양한 내용으로 독자들이 이콘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만남 코너에서는 수도회를 방문하여 수도회가 지향하는 목표와 방향, 지금까지 노력한 사항들을 서희정 편집위원이 직접 탐방하여 생생한 내용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는 나눔 코너에 하느님의 종으로 근현대시기에 신앙을 증거한 사목자를 탐구하였다. 김주완 편집위원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사목자를 발굴하고 소개하면서 신앙선조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또한, 독자 투고도 활성화하고자 한다. 평신도들이 현장에서 느낀 점을 진솔하게 작성하여 주면 영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여 독자들의 투고를 환영한다. 다산의 상징인 흰쥐의 해에 다양한 시각으로 구성된 독자의 투고가 더 많아지기를 바란다.

편집장 권영빈 가브리엘 올림

“평신도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평신도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내용은 현재 칼럼으로 연재되는 나의 신앙 선조, 주보성인과 나 등입니다. 또한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이나 영성체험 등도 좋습니다. 성지순례는 이미 내용이 풍부하여 사양합니다. 독자의 투고는 글자 크기 10포인트로 A4 용지 1.5매 정도입니다. 별도로 본인의 얼굴사진과 본문과 관련된 사진을 첨부하고 연락처와 번호를 남겨주면 됩니다. 접수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게재할 예정이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지불합니다. 투고는 clack-hongbo@daum.net으로 하면 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기다립니다.

교구평협, 회원단체 소속

『평신도』 명예기자를 모집합니다.



한국평협에서는 계간 『평신도』와 함께할 명예기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 교구평협과 회원단체별로 한 명의 명예기자를 선정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기자는 앞으로 『평신도』에 관련된 각 교구와 단체의 소식과 사진자료 등을 정리해서

한국평협 사무국 ☎ 02)777-2013, FAX 778-7427, 전자우편 clak0723@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명예기자는 아름다운 자원봉사활동입니다.

명예기자 명단(2020년 2월 현재)

소속	이름	세례명	이메일 주소
서울평협	염지유	로사	clas@clas.or.kr
춘천평협	이정란	미카엘라	kino70@hanmail.net
대전평단협	강현인	글라라	vingib@hanmail.net
인천평협	장영철	아우구스티노	kgph@caincheon.or.kr
수원평협	서덕희	미카엘라	pyonghyop@casuwon.or.kr
원주평협	백정현	임마누엘	obdo@obdo.co.kr
의정부평협	김현재	바오로	prwsave@naver.com
청주평협	이상철	방지거	howareyoulee@naver.com
마산평협	최명숙	안젤라	clacms@hanmail.net
안동평협	신춘덕	로사	s9581@hanmail.net
광주평협	정춘자	로사	jlosa1208@hanmail.net
전주평단협	유광용	대건 안드레아	teleto60@naver.com
제주평협	강수미	도미니카	enjoy7508@hanmail.net
꾸르실료한국협의회	김미녀	리디아	oh-mn@hanmail.net
마리아사업회(포콜라레)	최석균	마태오	maongchoi@hanmail.net
성빈첸시오아바오로회한국이사회	김영철	마티아	ssvpk@hanmail.net
한국가톨릭성령쇄신봉사자협의회	문호	토마스	younamedia@hanmail.net
한국가톨릭시각장애인선교협의회	김정현	도로테아	webmaster@blindmission.or.kr
한국가톨릭노동동맹회전국협의회	서선미	로사리아	cmi1021@hanmail.net